

고은 「눈길」

1 작품 분석

이제 바라보노라

①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②눈길을
온 ③겨울을 ④떠돌고 와
여기 있는 ⑤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

▶ 1 ~ 4행 : 방향을 끝낸 후의 명상

① 지난 것

⇒ 고뇌와 방향의 **과거**

② 눈길

⇒ 과거의 것을 모두 덮어 버림 : **평화**, **포용**

③ 겨울

⇒ 고통, 고뇌

④ 떠돌고 와

⇒ 화자가 지나온 삶(과거) : 방향

⑤ 낯선 지역

⇒ 원관념 : **눈길**

⇒ 방향과 고뇌를 끝내고 처음 경험하는 **평화**

나의 마음 속에 ①처음으로

②눈 내리는 풍경

세상은 지금 ③묵념의 가장자리

④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

⑤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

▶ 5 ~ 9행 : 공(空)으로 정화된 세계의 발견

① 처음으로

⇒ **과거**의 삶은 **방향**과 고뇌의 연속이었음

② 눈 내리는 풍경

⇒ **마음**의 **평화**(평온)을 되찾게 된 상태

③ 묵념의 가장자리

⇒ 원관념 : 눈길

⇒ 고요하고 **평화**로운 세계

④ 지나 온 어느 나라

⇒ 지나 온 삶의 고뇌와 방향

⑤ 설레이는 평화

⇒ 원관념 : 흘날리는 눈

⇒ 새로운 **평화**

①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

보이지 않는 움직임을

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

내리는 눈 사이로

귀 기울여 돌리나니 ② 대지의 고백

③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

▶ 10 ~ 15행 : 새로운 정신 세계의 열림

①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/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

⇒ 평온한 **내면**의 모습

⇒ 보이지 않는 움직임 : **역설**법

⇒ 어순의 배치를 바꿈 :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
바라보노라 - **도치**법

② 대지의 고백

⇒ **평화**의 소리, 방향과 번민 후의 깨달음

③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

⇒ 깨달음을 통해 지금까지 들을 수 없던 소리를 들음

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①눈길

안에서는 ②어둠이노라

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

이제와 ③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

쌓이는 눈더미 앞에

④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.

▶ 16 ~ 21행 : 정화된 외부 세계의 내면화

① 눈길

⇒ 정화되고 **평화**로운 세계

② 어둠

⇒ 고요하고 평화로운 **정신** 상태

⇒ 외면과 내면의 **동일**화

③ 위대한 적막

⇒ 원관념 : 어둠

⇒ 마음의 **평화**를 되찾은 상태

④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

⇒ 무념무상의 경지 표현

고재중 「세한도」

1

작품 분석

날로 기우듬해 가는 ①마을 회관 옆
②청솔 한 그루 ③꽃꽂이 서 있다

▶ 1연 : 꽃꽂이 서 있는 청솔의 모습

① 마을 회관

⇒ 퇴락해 가는 **농촌** 현실을 반영한 공간

② 청솔

⇒ **마을 회관** 과 대비

③ 꽃꽂이 서 있다

⇒ 청솔의 **의연** 한 모습

①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
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,
②그 동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
③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

▶ 2연 : 과거와 달리 퇴락한 현재의 농촌

① 한때는

⇒ **풍요로운** 시절 : 과거 회상

② 그 동치

⇒ 청솔의 동치

③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

⇒ 표현법 : **의인법**

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때마다
청솔은 또 한바탕 ①노엽게 운다.
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
②천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②이장과 함께.

▶ 3연 :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현실을 견디는 청솔

① 노엽게 운다

⇒ 표현법 : **의인법**

② 천동산 박달재

⇒ 현실에 지쳐서 부르는 슬픈 노래

② 이장

⇒ **청솔** 과 동병상련의 존재

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①궁벽, ②그러나
저기 ③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
그 ④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⑤보아라.

▶ 4연 :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사람들

① 궁벽

⇒ 가난

② 그러나

⇒ **시상** 전환, **정서** 변화, **어조** 변화

③ 난장

⇒ 난장판, 어지럽게 됨

④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

⇒ **희망** 을 찾으려는 사람들

⑤ 보아라

⇒ 어조(~어라, ~아라) : **명령** 형 어조

그때마다, 삭바람마저 빗질하여

①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

②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③보아라.

▶ 5연 : 시련을 견디며 푸르게 서 있는 청솔

①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

⇒ 슬픔을 잘 이겨내며

② 푸른 숨결

⇒ 현실 **극복** 의 의지, 희망

③ 보아라

⇒ 어조(~어라, ~아라) : **명령** 형 어조

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

①까막까치 일어 죽는 이 아침에도

저 동녘에선 ②꼭두서니빛 타오른다.

▶ 6연 : 어려운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희망

① 까막까치 일어 죽는 이 아침

⇒ **극한** 의 현실

② 꼭두서니빛

⇒ **희망** 의 빛, **시각** 적 심상

기형도 「홀린 사람」

1

작품 분석

①사회자가 외쳤다.

여기 ②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
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
이분의 슬픔은 ③이글거리는 빛이었다

▶ 1 ~ 4행 : 그 분에 대한 사회자의 소개

① 사회자

⇒ 지배가를 찬양하는 **선동가**

②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

⇒ 선동가를 이용해 **대중**을 속이는 지배자

⇒ 그분에 대한 찬양의 내용 1) : **이웃애**

③ 이글거리는 빛

⇒ 선동가의 미사여구 : 이웃의 **슬픔**에 대한 깊은 **공감**

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

이분은 ①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
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

▶ 5 ~ 7행 : 그분에 대한 사회자의 맹세

①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

⇒ 푸성귀 : 사소한 것, 대유법

⇒ 그분에 대한 찬양의 내용 2) : **사리사욕**하지 않는 삶 (이타주의)

사회자는 ①흐느꼈다

보라, 이분은 ②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
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

▶ 8 ~ 10행 : 사회자의 흐느낌

① 흐느꼈다

⇒ 군중의 **공감**을 유도하는 거짓 울음

⇒ 1연(외쳤다) → 2연(맹세했다) → 3연(흐느꼈다) : 사회자의 행위가 점층적으로 전개, **선동**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, 군중의 감정 **고조** 유발

②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

⇒ 그분에 대한 찬양의 내용 3) : **희생** 정신

①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②사회자를 제지했다

②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

③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

▶ 11 ~ 13행 : 그분의 반응과 군중의 환호

① 그분

⇒ **독재**자, 권력가, 지배자

② 사회자를 제지했다

⇒ **가식**적 모습

② 군중

⇒ 기만당하는 **우매**한 대중

③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

⇒ 현혹된 군중들이 감동에 겨워하는 모습

⇒ **우매**한 민중이 독재자의 교묘한 통치술에 속게 됨을 풍자

그때 ①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, ②당신은 신인가

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

③당신은 유명인가, 목소리가 물었다

▶ 14 ~ 16행 : 그분에 대한 누군가의 질문

① 누군가

⇒ 깨어 있는 민중, 비판적 지식인

⇒ 그분의 존재에 대해 **의구심**을 품은 사람

② 당신은 신인가 / ③ 당신은 유명인가

⇒ 지배자에 대한 **의심**의 목소리

①저 미치광이를 끌어내, 사회자가 소리쳤다

②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

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

▶ 17 ~ 19행 : 성난 사회자와 군중

①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, 사회자가 소리쳤다

⇒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지식인을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사회자의 모습

⇒ 이성적인 **비판**이 용납되지 않는 폭압적인 현실

②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

⇒ 선동가의 말에 현혹되어 이성을 상실한 채 **집단**광기에 휩싸인 대중들의 모습

①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

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

②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

다

▶ 20 ~ 22행 : 환호에 묻혀 버린 그분의 답변

- ①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
 - ⇒ **우매**한 군중
 - ⇒ 12, 13행의 **반복**법
- ②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
 - ⇒ 그분의 실체가 **대중**에 의해 은폐되는 역설적 상황 제시
 - ⇒ **비판** 의식을 상실한 군중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배자의 실체가 감추어짐

김광규 「안개의 나라」

1 작품 분석

- ①언제나 ②안개가 짙은
- ③안개의 나라에는
- ④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

▶ 1 ~ 3행 :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개의 나라

- ① 언제나
 - ⇒ 부정적 상황의 **지속** 과 **심화**
- ② 안개
 - ⇒ 진실을 **덮거나** 가리는 부정적 수단
 - ⇒ 비판적 태도를 **마비** 시키는 수단
- ③ 안개의 나라
 - ⇒ **분별**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부정적 시대 공간
- ④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
 - ⇒ 이유 : 발생한 일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덮여지기 때문, 항상 사실이나 진실을 **은폐**함
 - ⇒ 의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 : **반어**법

어떤 일이 일어나도
안개 때문에
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

- ①안개 속에 사노라면
- ②안개에 익숙해져
- ③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

▶ 4 ~ 9행 : 아무 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안개의 나라 사람들

- ① 안개 속에 사노라면
 - ⇒ 많은 것을 가려버려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에 살면
- ② 안개에 익숙해져
 - ⇒ 분별력과 비판력이 상실되어 **소시민**으로 길들여진 상태
- ③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
 - ⇒ 현실에 **안주**하는 소극적이고, 무기력한 삶의 태도

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

- ①보려고 하지 말고
들어야 한다
- ②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
- ③귀는 자꾸 커진다

▶ 10 ~ 14행 : 귀가 커지는 안개의 나라 사람들

- ① 보려고 하지 말고 / 들어야 한다
 - ⇒ 부정적 현실에 대한 차선적 대응
 - ⇒ 보는 것 : **주체**적 행위
 - ⇒ 듣는 것 : **순응**적, **수동**적 행위
- ②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
 - ⇒ 표현법 : 중의법
 - ⇒ 1) 시야가 차단당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**소리**에 의존해야 살 수 있음
 - ⇒ 2) **순종**해야만 살 수 있음 : 강압적 현실에 굴종
- ③ 귀는 자꾸 커진다
 - ⇒ 생존하기 위한 방편

- ①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
- ②토끼 같은 사람들이
안개의 나라에 산다

▶ 15 ~ 17행 :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사는 안개의 나라

- ① 하얀 안개의 귀
 - ⇒ 방어적 기제로 커진 비정상적인 귀
- ② 토끼 같은 사람들이
 - ⇒ 관습이나 부조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**소시민**

김광균 「노신」

1 작품 분석

- ①시(詩)를 믿고 어떻게 살어나나
- ②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.
- ③먼 —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
- ④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말에
- ⑤밤눈이 ⑥내려 쌓이나 보다.
- ⑦무수한 손에 빵을 얻어맞으며
- 항시 ⑧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
- 지나는 ⑨돌팔매에도 ⑩이제는 피곤하다.
- ⑪먹고 산다는 것,
- ⑫너는 언제까지 ⑬나를 쫓아오느냐.

▶ 1연 : 현실의 고통 때문에 시에 대한 신념에 회의를 품게 되는 가장의 불면의 밤

- ① 시(詩)
 - ⇒ **이상**, 소망
- ②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.
 - ⇒ 이유 : **현실**과 **이상**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, 현실적 고통에 대한 한탄
 - ⇒ 서른 먹은 사내 : 화자
 - ⇒ 잠을 못 잔다 : 불면의 밤(전전 반측)
- ③ 먼 — 기적 소리
 - ⇒ 감각적 표현 : **청각**적 심상
- ④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
 - ⇒ 돌봐야 할 가족, 가장으로서의 **책임**감
- ⑤ 밤눈
 - ⇒ 생활의 무게, 성찰의 분위기
- ⑥ 내려 쌓이나 보다.
 - ⇒ **어려움**이 쌓임
- ⑦ 무수한 손에 빵을 얻어맞으며
 - ⇒ 화자가 겪는 **시련**
- ⑧ 곤두박질해 온 생활
 - ⇒ 힘겹고 절망적인 삶
- ⑨ 돌팔매
 - ⇒ 빵을 얻어맞으며
- ⑩ 이제는 피곤하다
 - ⇒ 화자의 상황

- ⑪ 먹고 산다는 것
 - ⇒ 의식주, **현실**의 생활
- ⑫ 너
 - ⇒ 먹고 산다는 것
 - ⇒ 표현법 : **의인**법
- ⑬ 나
 - ⇒ 화자

- ①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앓는다.
 - ② 담배를 피워 문다.
 - ③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.
 - ④ 노신(魯迅)이여
 - ⑤ 이런 밤이면 ⑥ 그대가 생각난다.
 - ⑦ 온 —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
 - ⑧ 상해(上海) 호마로(胡馬路)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⑨ 등불
 - ⑩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.
 - 여기 하나의 ⑪ 상심(傷心)한 사람이 있다.
 - 여기 하나의 ⑫ 군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.
- ▶ 2연 : 쓸쓸함을 맞보다 노신을 떠올리며 다져 보는 현실 극복의 의지

- ①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앓는다.
 - ⇒ 잠이 안와서 등불을 켜
 - ⇒ **노신**을 떠올리는 계기
- ② 담배를 피워 문다.
 - ⇒ 화자의 내적 갈등의 형상화 : **고민**이 많다
- ③ 쓸쓸한 것
 - ⇒ 담배 연기 : 자신의 삶에 대한 **서글픔**
- ④ 노신(魯迅)
 - ⇒ 한 평생 신념을 지키며 살다가 중국의 문인
 - ⇒ 화자가 닮고 싶은 인물
 - ⇒ 화자와 **동일**시되는 인물
 - ⇒ 화자에게 **등불**과 같은 존재
- ⑤ 이런 밤
 - ⇒ **비극**적 현실이면서 **극복**의지를 다지는 시간
- ⑥ 그대가 생각난다
 - ⇒ 이유 : ‘노신’이 ‘나’와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
 - ⇒ 그대 : 노신
- ⑦ 온 —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
 - ⇒ 화자의 정서 : **과장**법
- ⑧ 상해(上海) 호마로(胡馬路) 어느 뒷골목
 - ⇒ 힘겹게 **신념**을 지키며 살았던 노신의 주거지
- ⑨ 등불
 - ⇒ 고독한 등불

⇒ 노신과 화자의 **지조**

⑩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.

⇒ 등불 : **의지**를 다지게 하는 사물

⇒ 힘든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삶의 가치

⇒ 노신의 정신

⇒ 실제 속삭이는 것은 자신 : **주객전도** 표현

⑪ 상심(傷心)한 사람

⇒ 현실의 어려움을 겪었던 노신이면서 **자신**

⑫ 굳세게 살아온 인생

⇒ 자신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온 노신

⇒ **극복 의지**를 가진 자아(화자 자신)

⇒ 어려움을 견뎌 냈던 노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노신의 **의지**를 본받으려 하고 있음

김광섭 「저녁에」

1

작품 분석

- ①저렇게 많은 중에서
- ②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.
- ③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
- ④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.

▶ 1연 : 별과 '나'의 만남과 교감(인연)

- ① 저렇게 많은 중
 - ⇒ 천상의 존재들 : '별들' 단어 생략 - 저렇게 많은 별들 중 에서
- ② 별 하나
 - ⇒ 화자와 대면하고 **관계**를 맺는 **소중**한 존재
- ③ 이렇게 많은 사람
 - ⇒ **지상**의 존재들
- ④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
 - ⇒ '나'와 '별'이 **관계**를 형성
- 1, 2행과 3, 4행의 관계
 - ⇒ '별'과 '나'의 운명적 **만남**과 친밀한 **관계** 형성
 - ⇒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: **대구**법

- ①밤이 깊을수록
- ②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
-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.

▶ 2연 : 별과 '나'의 관계 소멸(결별)

- ① 밤
 - ⇒ **이별**, 단절의 시간
- ②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/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
 - ⇒ 별을 밝은 속에 사라지고 : 별은 아침이 오면 **일시**적으로 사라지는 존재
 - ⇒ 어둠 : **죽음**, **늙음**
 - ⇒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: 인간은 **고독**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
 - ⇒ 별은 밝음 ~ 속에 사라진다 : '별'과 '나'의 관계 **소멸**
 - **대구**법

이렇게 ①정다운
너 하나 나 하나는
어디서 무엇이 되어
②다시 만나랴.

▶ 3연 :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

- ① 정다운
 - ⇒ 화자가 원하는 참다운 관계
- ② 다시 만나랴
 - ⇒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별과 다시 **만나**기를 소망
 - ⇒ 다시 만나야 한다 : 질문 속에 답이 있음 - **설의**법

- 제목 '저녁에'의 의미
 - ⇒ '**별**'이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
 - ⇒ 인간사의 황혼 : **죽음**을 앞둔 시간
 - ⇒ '별'과 '나'의 **만남**과 **이별**의 시간
 - ⇒ 내면적 **성찰**의 시간, **고독**을 느끼는 시간

자기학습용 - 빈칸 답지

김소월 「산유화」

1 작품 분석

산에는 꽃 피^①네
 ②꽃이 피네.
 ③갈 봄 여름 없이
 꽃이 피네.

▶ 1연 : 생명의 탄생

- ① 네
 ⇒ 감정이 절제된 **중결** 어미 반복 : **운율** 형성
- ② 꽃이 피네.
 ⇒ 꽃 피네 → 꽃이 피네 : 변조 → 운율 형성
- ③ 갈
 ⇒ 갈 : 가을 - 의도적 변형
- ※ 이 작품의 운율
 ⇒ **3음보** : 산에는(1음보) 꽃 피네(2음보) 꽃이 피네(3음보) / 갈 봄(1음보) 여름 없이(2음보) 꽃이 피네(3음보)
 ⇒ '~네'의 반복 : 일정한 중결 어미 반복 - **각운**

①산에
 산에
 피는 ②꽃은
 ③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.
 ▶ 2연 : 저만치 피어 있는 꽃(고독하고 순수한 존재)

- ① 산에 / 산에
 ⇒ 표현법 : **반복** 법
- ② 꽃
 ⇒ 중심 소재 : 산유화, 산에 피어 있는 꽃
 ⇒ 꽃은 단순한 꽃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**사물** 을 지칭
- ③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.
 ⇒ 화자가 산의 바깥에서 볼 경우 : 저만큼 - 나와 다른 것, 인간과 자연의 **거리** (자연에 가고 싶은 소망)
 ⇒ 화자가 산 안에서 볼 경우 : 저렇게 - 나와 같은 것, 화자와 같이 **고독** 한 존재
- ※ 이 작품의 운율
 ⇒ **3음보** : 산에(1음보) 산에(2음보) 피는 꽃은(3음보) /

저만치(1음보) 혼자서(2음보) 피어있네(3음보)

⇒ '~네'의 반복 : 일정한 중결 어미 반복 - **각운**

산에서 ①우는 작은 새여,
 ②꽃이 좋아
 ③산에서
 사노라네.
 ▶ 3연 : 꽃이 좋아 산에 사는 새(고독하고 순수한 존재)

- ① 우는 작은 새
 ⇒ 새가 우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우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
 ⇒ 새 : **감정이입** 의 대상, 외로움을 **긍정** 하는 존재
- ② 꽃이 좋아
 ⇒ 이유 : 새나 꽃은 **고독** 하고 **순수** 한 존재
- ③ 산
 ⇒ 산 : 꽃과 새가 있는 곳, **포용** 의 공간
- ※ 이 작품의 운율
 ⇒ **3음보** : 산에서(1음보) 우는(2음보) 작은 새여(3음보) / 꽃이 좋아(1음보) 산에서(2음보) 사노라네(3음보)
 ⇒ '~네'의 반복 : 일정한 중결 어미 반복 - **각운**

산에는 꽃 ①지네
 꽃이 지네.
 갈 봄 여름 없이
 꽃이 지네.
 ▶ 4연 : 갈 봄 여름 없이 산에 지는 꽃(생명의 소멸)

- ① 지네
 ⇒ 피네 → 지네 : 자연의 **순환성** 과 관련
- ※ 이 작품의 운율
 ⇒ **3음보** : 산에는(1음보) 꽃 지네(2음보) 꽃이 지네(3음보) / 갈 봄(1음보) 여름 없이(2음보) 꽃이 지네(3음보)
 ⇒ '~네'의 반복 : 일정한 중결 어미 반복 - **각운**
 ⇒ **수미상관** : 시의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반복

김수영 「눈」

1 작품 분석

①눈은 살아 있다.

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

②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.

▶ 1연 : 살아 있는 눈 - 순수한 생명력

① 눈은 살아 있다

⇒ 눈 : **순수**하고 **생명**력을 지닌 존재

⇒ 살아 있다 : **생명**력을 지니고 있음

②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

⇒ **정지**해 있는 눈조차 **생명**력을 지니고 있다

⇒ 눈은 살아 있다 : 표현법 - **반복**법

○ 1연 전체의 표현법 ⇒ 눈은 살아 있다 …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…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: **점층**법

①기침을 하자

②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

③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

눈더러 보라고 ④마음 놓고 마음 놓고

⑤기침을 하자

▶ 2연 : 눈을 향한 기침 - 불순한 삶의 거부

① 기침을 하자

⇒ **가래**를 뱉는 행위 : 자기 **정화**

② 젊은 시인

⇒ **순수**하고 **정의**로운 존재

③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

⇒ 이유 : 부정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**순수**하고 **정의**

로운 존재(젊은 시인)가 자기 **정화**를 통해 **순수**

하고 **생명**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더러

운 부분을 **눈**을 통해 **정화**하려고 함

④ 마음 놓고 마음 놓고

⇒ 지금까지는 기침조차 **마음**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

⑤ 기침을 하자

⇒ 표현법 : **반복**법

⇒ 하자 : **청유**형 어미 - **의지** 표현

눈은 살아 있다.

①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

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.

▶ 3연 :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는 눈 - 눈의 끈질긴 생명력

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

⇒ **죽음**을 초월한 **순수**한 영혼과 육체의 갈망

①기침을 하자

②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

③눈을 바라보며

밤새도록 고인 ④가슴의 가래라도

⑤마음껏 뱉자.

▶ 4연 : 가래를 뱉음 - 불순한 삶(부정적 현실)의 거부

① 기침을 하자

⇒ **가래**를 뱉는 행위 : 자기 **정화**

② 젊은 시인

⇒ **순수**하고 **정의**로운 존재

③ 눈을 바라보며

⇒ 이유 : 부정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**순수**하고 **정의**

로운 존재(젊은 시인)가 자기 **정화**를 통해 **순수**

하고 **생명**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더러

운 부분을 **눈**을 통해 **정화**하려고 함

④ 가슴의 가래

⇒ **불순**한 것

⑤ 마음껏 뱉자

⇒ 부정적 상황을 극복한 **자유**의 갈망

⇒ 뱉자 : **청유**형 어미 - **의지** 표현

김영랑 「모란이 피기까지는」

1 작품 분석

①모란이 피기까지는
나는 ②아직 나의 ③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.
▶ 1 ~ 2행 :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- 현재

- ① 모란
⇒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 : **순수** 함, **이상** 적 세계, 삶의 **보람**
- ② 아직
⇒ 포기하지 않음
- ③ 봄
⇒ **모란**, 소망

모란이 ①뚝뚝 떨어져 버린 날,
나는 비로소 ②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.
▶ 3 ~ 4행 : 모란을 여윈 설움 - 미래

- ① 뚝뚝 떨어져 버린 날,
⇒ 화자의 정서 : **절망** 감
⇒ 뚝뚝 : 의태어의 사용, **시각** 적 심상
- ② 봄을 여윈 설움
⇒ 모란이 떨어져 버린 **슬픔**, 보람이 무너져 버린 **슬픔**

①오월 어느 날, 그 하로 무덥던 날,
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
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없어지고,
뻗쳐 오르던 ②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,
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, ③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,
④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.
▶ 5 ~ 10행 : 모란이 지고난 뒤의 절망감과 슬픔 - 과거의 체험

- ① 오월 어느 날
⇒ **모란** 이 떨어진 날
- ②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,
⇒ 자기 경험의 고백 : 모란이 피었을 때 느꼈던 보람의 감

정이 모란이 지고 나자 **절망** 으로 바뀜

- ③ 내 한 해
⇒ 모란은 화자에게 전부의 대상
- ④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.
⇒ 표현법 : **과장** 법
⇒ 삼백 예순 날 : 추상적 정감의 깊이
⇒ 섭섭해 우웁내다 : 화자의 정서

모란이 피기까지는
①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, 찬란한 슬픔의 봄을.
▶ 11 ~ 12행 :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- 현재

- 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, 찬란한 슬픔의 봄을.
⇒ 아직 : 여전히 포기하지 않음
⇒ 찬란한 슬픔의 봄 : **역설** 적 표현
⇒ 봄이 찬란한 슬픔인 이유 : 봄이 오면 모란이 피기 때문에 **찬란** 한 계절이지만 곧 봄이 끝나면 모란이 질 것이기 때문에 **슬픔** 의 계절임
⇒ **수미상관** : 시의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반복
⇒ 어순의 배치를 바꿈 :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- **도치** 법

김종길 「성탄제」

1 작품 분석

①어두운 방 안엔,
②바알간 숯불이 피고,

- ① 어두운 방
 - ⇒ 검은빛 : 우울함
 - ⇒ 어두운 : 색(빛)깔 표현 사용, **시각**적 심상

- ② 바알간 숯불
 - ⇒ 밝은 빛 : 아늑함
 - ⇒ 바알간 : 색(빛)깔 표현 사용, **시각**적 심상

- ①②
 - ⇒ 어두운 ↔ 바알간 : **색채** 대비

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,
애처로이 ①젓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.

- ① 젓아드는 어린 목숨
 - ⇒ 아파서 힘들어하는 시적 화자

①이윽고 눈 속을
아버지가 ②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.

- ① 이윽고
 - ⇒ 장면 전환
- ② 약
 - ⇒ 산수유 열매, 아버지의 **사랑**

①아, 아버지가 ②눈을 헤치고, 따 오신
③그 붉은 산수유 열매 —.

- ① 아
 - ⇒ 감탄사의 사용 : **영탄**법
- ② 눈
 - ⇒ **고난**, 시련
- ③ 그 붉은 산수유 열매 —.
 - ⇒ 아버지의 **사랑**을 형상화
 - ⇒ 밑줄표(—) : '잊을 수 없음'을 생략을 통해 강조

①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,
젊은 아버지의 ②서느런 옷자락에,
③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.

- ①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,
 - ⇒ **나약**하고 순수한 존재
- ② 서느런 옷자락에,
 - ⇒ **사랑**
 - ⇒ 서느런 : **촉각**적 심상
- ③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.
 - ⇒ 부비는 것 : **고마움**의 표현
 - ⇒ 열로 상기한 불 : **촉각**적 심상
- ②③
 - ⇒ 서느런 ↔ 열 : **촉각** 대비

이따금 뒷문을 ①눈이 치고 있었다.
그날 밤이 어찌면 ②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.
▶ 1 ~ 6연 : 어린 시절, 아픈 아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 오신 일에 대한 기억

- ① 눈
 - ⇒ 과거의 현재의 연결 매개체
- ② 성탄제의 밤
 - ⇒ 인간의 보편적 **사랑**이 넘치는 휴머니즘이 충만한 시간
 - ⇒ **희생**을 통한 사랑의 실천

어느새 나도
①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.

- ①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.
 - ⇒ 시간의 전환 : **과거** 회상 → 현실

①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
②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
이제 ③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

- ①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
 - ⇒ 옛것 : 아버지의 **사랑**과 같은 것
 - ⇒ **삭막**한 현실
- ② 성탄제 가까운 도시
 - ⇒ **과거**와 대비되어 현실의 **삭막**함 강조
- ③ 반가운 그 옛날의 것
 - ⇒ 아버지의 **사랑**이 있었던 그날 내린 눈
 - ⇒ 회상의 매개체, 시작 동기

①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
불현듯 아버지의 ②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

- ① 서러운 서른 살
⇒ 한 현실을 살아가는 아픔
- ② 서느런 옷자락
⇒ 아버지의

①눈 속에 떠오신 ②산수유 붉은 알알이
아직도 내 ③혈액 속에 ④녹아 흐르는 까닭일까.
▶ 7 ~ 10연 :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,
서러운 서른 살이 되어 불현 듯 느끼는 그리움

- ① 눈
⇒ 고난, 시련
- ② 산수유 붉은 알알이
⇒ 아버지의
- ③ 혈액
⇒ 생명, 혈육의 사랑
- ④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
⇒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, 아버지의 사랑은
영원히 남아 있다.
⇒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
⇒ 질문 속에 답이 있음 : 법

김중삼 「누군가 나에게 물었다」

1 작품 분석

①누군가 나에게 물었다. 시가 뭐냐고
 ②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.
 ③①무교동과 ②종로와 ③명동과 ④남산과
 ⑤서울역 앞을 걸었다.
 ▶ 1 ~ 4행 : 시와 시인의 본질- 문제제기

- 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. 시가 뭐냐고
 - ⇒ 시와 시인의 존재 **의미**와 **가치**에 대한 질문
 - ⇒ 어순의 배치를 바꿈 : 누군가 나에게 시가 뭐냐고 물었다 - **도치**법
- ② 나는 시인이 못됨
 - ⇒ 화자의 **겸손**하고 겸허한 자세
- ③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/ 서울역 앞을 걸었다.
 - ⇒ 시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**답**을 찾기 위한 과정 : 사색과 성찰의 과정
 - ⇒ 답을 구하기 위한 갈등과 방향
- ④ 무교동 / ⑤ 종로 / ⑥ 명동 / ⑦ 남산 / ⑧ 서울역 앞
 - ⇒ 생기 있는 생활의 공간, 삶의 터전
 - ⇒ 건강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**평범**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
 - ⇒ **서민**적인 공간
 - ⇒ **일상**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나에게 **시인**으로서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공간

저물녘 ⑨남대문 시장 안에서
 빈대떡을 먹을 때 ⑩생각나고 있었다.
 ▶ 5 ~ 6행 : 시와 시인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

- ① 생각나고 있었다.
 - ⇒ 깨달음
- ⑨ 남대문 시장 안
 - ⇒ 생기 있는 생활의 공간, 삶의 터전
 - ⇒ 건강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**평범**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

- ⇒ **서민**적인 공간
- ⇒ **일상**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나에게 **시인**으로서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공간

①그런 사람들이
 ②엄청난 고생 되어도
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
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
 ③그런 사람들이
 이 세상에서 ④알파이고
 ⑤고귀한 인류이고
 ⑥영원한 광명이고
 다름 아닌 ⑦시인이라고.
 ▶ 7 ~ 15행 : 시인의 바람과 사회적 책무 (성실하고 건강한 민중들의 삶에 대한 긍정)

- ① 그런 사람들이
 - ⇒ 주변의 **평범**한 사람들, 민중
- ② 엄청난 고생 되어도 /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/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
 - ⇒ **평범**한 서민, 민중들이 사는 모습
- ③ 그런 사람들
 - ⇒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**보통** 사람들 : '**시인**'의 모습을 발견
- ④ 알파
 - ⇒ 시작, 시초, 기원, 밑바탕, 가장 중요한 것
- ⑤ 고귀한 인류
 - ⇒ **참다운** 인생을 사는 사람
 - ⇒ 건강한 인간의 모습
- ⑥ 영원한 광명
 - ⇒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삶의 양식 : **평범**한 민중의 삶이 세상의 본질이고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것임
- ⑦ 시인
 - ⇒ 시와 시인의 **본질**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남
 - 1) 건강하고 민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
 - 2) 참다운 시인은 인생을 **가치** 있게 사는 사람
 - 3) 힘겨운 삶 속에서도 선한 심성과 인정을 지닌 사람

김중철 「만나는 법」

1

작품 분석

- ① 어린 시절,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
- ② 내일은 언제 오나요
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
다음 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
- ③ 오늘이 내일인가요?
- ④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
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

▶ 1연 : 어린 시절의 이야기

- ① 어린 시절
⇒ 과거
- ② 내일은 언제 오나요
⇒ 어린 아이다운 어린 시절의 호기심, 내일에 대한 화자의
궁금함, 빨리 미래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
- ③ 오늘이 내일인가요?
⇒ 어린 아이다운 어린 시절의 호기심
- ④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/ 또 하룻밤 더 자야 한
단다
⇒ 내일은 단지 '나의 **기다림**과 **기대**, 설렘 속에서
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에 내일은 실제로 존
재할 수 없음

- ①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
어머니 임종의 이마에
둘러앉아 있는 ②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
애야 ③내일까지 ④갈 수 있을까?
- ⑤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 걸요
- ⑥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
다음 날 어머니의 베갯모에
수실로 뜨인 ⑦학 한 마리가 ⑧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
니다
- ⑨오늘이 내일이지
- ⑩아니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
하룻밤을 지내야 해요

▶ 2연 :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임종의 상황

- ①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

- ⇒ 시간 : 현재
- ⇒ 전갈 : 어머니의 임종 소식
- ② 어제의 것들
⇒ 어머니와 어머니의 삶에 속한 것들을 **시간**적 개념으
로 표현
- ③ 내일
⇒ 어릴 때 어머니에게 묻던 '내일'이라는 의문이 화자에게
던져짐
- ④ 갈 수 있을까?
⇒ **살** 수 있을까?
- ⑤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 걸요
⇒ **내일**이 있다는 화자의 생각 : 어릴 때 어머니가 한
말과 대응, 미래까지 어머니가 **살** 수 있을 것이라는
믿음
- ⑥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
⇒ 이유 : 내일에 대한 **희망** 때문
- ⑦ 학 한 마리
⇒ **어머니**의 분신
- ⑧ 날아오르며
⇒ 운명의 순간, 어머니의 **죽음**
- ⑨ 오늘이 내일이지
⇒ 살 **희망**이 없음
- ⑩ 아니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/ 하룻밤을 지내야 해요
⇒ 어머니에게 **희망**을 주려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표
현, 어머니가 **오늘**(삶)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

- ①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
다 우리 집에는
- ②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
- ③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
- ④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
나와 ⑤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

- ① 이제
⇒ 어머니와 사별한 현재의 시간
- ②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
⇒ 어제라는 집 : 과거
⇒ '어제라는 **과거**의 기억' 속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
음
- ③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
⇒ 오늘이라는 집 : 현재
⇒ '오늘이라는 **현실**' 속에서 아내를 만남
- ④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
⇒ 내일이라는 집 : 미래

⇒ '내일이라는 **미래**'의 기대 속에서 딸을 만남

⑤ 쉽게 만나는 법

⇒ '과거에 대한 기억'과 '미래에 대한 기대'를 '현재라는 시간' 속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사별한 슬픔을 **담담**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됨

⇒ 인간은 시간의 **순환**성에 의해 '과거-현재-미래'로 이어지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음

김준태 「강강술래」

1 작품 분석

- ①추석날 천리 길 고향에 내려가
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
- ②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
어느덧 ③산국화 냄새 나는 팔순 할머니
- ④팔십평생 행여 풀여치 하나 밭을세라
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

▶ 1~6행 : 작은 생명마저도 소중히 여기며
조화로운 삶을 살아오신 할머니의 모습

- ① 추석날 천리 길 고향
⇒ 계절적, 공간적 배경 : 화자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
(도시)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함
- ②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
⇒ 할머니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행동을 통해 드러냄
- ③ 산국화 냄새
⇒ 할머니의 소박한 삶을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
⇒ 할머니의 삶 의 모습과 자연 의 모습이 다르지 않
다는 일체감
- ④ 팔십평생 행여 ~ 살아오신 할머니
⇒ 자연 과 생명 을 아끼고 배려하며, 조화 로운
삶을 추구해 온 할머니의 모습

추석날 천리 길 고향에 내려가
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
언제나 변함없는 ①대발을 바라본다
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가꾸신 대발
대발이 죽으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고
②가는 해마다 거름주고 오는 해마다 거름주며
죽순 하나 뽑지 못하게 하시던 ③할아버님
할아버님의 ④흰 옷자락을 그리워하며
⑤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발을 바라본다

▶ 7~15행 : 변함없는 모습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시며
순수하게 살았던 할아버지에 대한 회상

- ① 대발
⇒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자 할아버지의
정성이 담겨 있는 곳

- ② 가는 해마다 거름주고 오는 해마다 거름주며
⇒ 대발(자연)에 대한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
⇒ 표현법 :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- 대구 법
- ③ 할아버님
⇒ 개인보다 공동체의 삶을 추구한 인물
- ④ 흰 옷자락
⇒ 화자가 떠올리는 '할아버님'에 대한 인상을
시각적으로 형상화 : 깨끗하고 정갈함, 죽음
의 이미지(돌아가신 할아버님)
- ⑤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발을 바라본다
⇒ 화자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처럼 때 묻지 않은
농촌의 모습을 회상

①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
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
②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
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.

▶ 16~19행 : 농촌 공동체로의 회귀를 소망

- ① 너무 늙어 ~ 발톱을 깎아주면서
⇒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하여 작품 전체의 구조를 분절
하는 동시에 통일감을 부여
- ② 강강술래 나는 ~ 되고 싶었다
⇒ 강강술래 : 소원을 비는 말
⇒ 논/밭 : 농촌 공동체의 삶 - 자연과 인간이 조화
를 이루는 세계
⇒ 강강술래 나는 ~ 되고 싶었다 :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
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에 대한 정신적 지
향을 드러냄

김춘수 「꽃」

1

작품 분석

①내가 ②그의 ③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
④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

▶ 1연 : 명명(인식)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

① 내

⇒ 인식의 **주체**

② 그

⇒ 인식의 **대상**

③ 이름을 불러주기

⇒ 존재 **인식**의 수단(명명)

④ 하나의 몸짓

⇒ 명명이전의 상태

⇒ **무의미**한 존재

내가 그의 ①이름을 불러주었을 때
②그는 나에게로 와서
③꽃이 되었다.

▶ 2연 : 명명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

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

⇒ **의미**를 부여하는 행위

② 그는 나에게로 와서

⇒ 그와 나는 서로 교섭이 가능한 관계

⇒ 상호주체적 관계

③ 꽃

⇒ **의미** 있는 존재

①내가 그의 ②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
나의 이 ③빛깔과 향기에 알맞은
④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.
그에게로 가서 나도
⑤그의 꽃이 ⑥되고 싶다.

▶ 3연 :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

① 내

⇒ 인식의 **주체**

②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

⇒ 존재를 **인식**하는 것

③ 빛깔과 향기

⇒ 존재의 **본질**

④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.

⇒ 나의 존재를 **인식**해 주기를 소망

⑤ 그의 꽃

⇒ 그에게 **의미** 있는 존재

⑥ 되고 싶다.

⇒ 갈구적 어조

①우리들은 모두

②무엇이 되고 싶다.

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

잊혀지지 않는 ③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.

▶ 4연 :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

① 우리

⇒ **나**의 소망이 **우리**의 소망으로 확대

② 무엇

⇒ **의미** 있는 존재

③ 하나의 눈짓

⇒ **의미** 있는 존재

나태주 「사는 일」

1

작품 분석

- ①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.
- ②굽은 길은 굽게 가고
곧은 길은 곧게 가고

▶ 1연 :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

- ①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
 - ⇒ 인생에 대한 화자의 **긍정**적 인식
- ② 굽은 길은 굽게 가고 / 곧은 길은 곧게 가고
 - ⇒ 주어진 삶에 **순응**하며 삶
 - ⇒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: **대구**법

- 막판에는 나를 신고
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
- ①제 시간 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
걸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
 - ②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.

▶ 2연 : 살면서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

- ① 제 시간 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
 - ⇒ **예상**치 못한 상황에 처함
- ②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
 - ⇒ 겪지 않아도 될 **고난**과 **시련**

- ①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.
걸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
- ②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
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
빨갭게 익은 멥석딸기도 만나고
해 저문 개울가 고기 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
물총새,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

▶ 3연 : 삶의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 인식을 놓지 않는 자세

- ①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
 - ⇒ 시상 **전환**,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화자의 **긍정**적 인식
- ② 만나지 못했을 ~ 날갯짓도 보았으므로

- ⇒ 아름다운 **자연**의 풍경을 보며 고난을 **긍정**적으로 인식
- ⇒ 바람, 멥석딸기 물총새, 쪽빛 날갯짓 : 고난의 상황을 **긍정**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

- ①이제 날 저물려고 한다
- ②길바닥을 떠돌던 바람도 잠잠해지고
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.
- ③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
잘 살았다.

▶ 4연 : 하루를 마무리하며 느끼는 자기만족

- ① 이제 날 저물려고 한다
 - ⇒ **시간**의 흐름
- ② 길바닥을 떠돌던 ~ 숲으로 돌렸다
 - ⇒ 하루가 마무리됨을 **자연**물을 통해 표현
- ③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/ 잘 살았다.
 - ⇒ **긍정**적 인식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자기 **만족**

나희덕 「땅끝」

1 작품 분석

①산 너머 ②고운 노을을 보려고
 ③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.
 ④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.
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⑤그넷줄이
 오랫동안 삐걱삐걱 ⑥떨고 있었어.

▶ 1연 : 어린 시절의 회상 - 노을이 사라진 후의 불안감

- ① 산
⇒ **현실** 적 장애
- ② 고운 노을
⇒ **소망**, **이상**, 꿈
- ③ 그네
⇒ **꿈** 을 향한 몸부림, 현실 **극복** 의 수단
- ④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
⇒ 어둠 : 부정적 상황
⇒ 잡아먹혔지 : **좌절**, **절망**, 허탈감
- ⑤ 그넷줄
⇒ **긍정** 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**객관적 상관** 물
- ⑥ 떨고 있었어
⇒ 노을이 사라진 후의 **불안** 감 : **현실** 에 대한 두려움 - **감정** 이입

어릴 때는 ①나비를 좇듯
 아름다움에 취해 ②땅끝을 찾아갔지.
 ③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.
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④땅끝에 서게도 되지.
 파도가 끊임없이 ⑤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
 이렇게 ⑥뒷걸음질치면서 말야.

▶ 2연 : 현실적 삶의 위기 속에서 느끼는 절망

- ① 나비
⇒ **이상**, **꿈**, 환상
- ② 땅끝
⇒ 해가 솟는 공간 : **희망**, 지향하는 공간
- ③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
⇒ 진짜 땅끝 : **절망** 과 **두려** 움

⇒ 진짜 땅끝 : 어린 시절이 아닌 **현재** 의 절망

- ④ 땅끝
⇒ 삶의 위기, **절망** 적 상황 : 인생의 시련을 **공간** 적으로 인식
- ⑤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
⇒ 화자가 처한 **위태** 롭고 **절망** 적 상황
- ⑥ 뒷걸음질
⇒ 삶에 대한 애착에서 오는 소극적 행위 : 절망적 삶이지만 쉽게 **포기** 할 수 없음

살기 위해서는 이제

①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.
 ②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
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

▶ 3연 :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느끼는 절망감

- ①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
⇒ 어려움을 만나 **소극** 적인 화자의 태도
- ②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
⇒ **땅끝**, **절망** 적 위기의 상황

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①땅의 끝,
 ②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.
 ③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
 땅끝은 늘 ④젖어 있다는 것이
 ⑤그걸 보려고
 또 몇 번은 ⑥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

▶ 4연 : 절망 끝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

- ① 땅의 끝
⇒ 삶의 막다른 골목, **절망** 적 상황
- ② 그런데
⇒ 시상의 **전환**
- ③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
⇒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삶의 **진실** 과 **아름다움** 을 발견 : 표현법 - **역설** 법
- ④ 젖어 있다는 것
⇒ 땅끝 : 절망적 상황
⇒ 바다의 **시작** : **희망** - 절망에 대한 **긍정** 적 인식
- ⑤ 그걸 ⇒ 젖어 있는 것
- ⑥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
⇒ 여기 : **땅끝**
⇒ 이르리라는 것 : 땅끝에서의 **깨달음** - 삶에 대한 **긍정** 적 인식

박봉우 「나비와 철조망」

1 작품 분석

지금 저기 보이는 ①시퍼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 일을 벌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. 서녘 하늘은 ②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……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③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.

▶ 1연 : 시퍼런 강과 산을 넘어 비행하는 나비

- ① 시퍼런 강
⇒ **극복**해야 할 부정적 대상
- ②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
⇒ 노을 속에 지는 해
- ③ 서로 가슴 타는
⇒ 서로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'해'와 '나비'의 마음
⇒ **분단**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아픔

①모진 바람이 분다.

그런 속에서 ②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③생채기. 첫 고향의 ④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.

▶ 2연 : 꽃밭을 바라며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

- ① 모진 바람
⇒ **외세**와 **분단**의 바람
- ②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
⇒ 시대 상황에 **상처** 받은 우리 민족의 모습
⇒ 그 중에서도 가려진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
- ③ 생채기
⇒ 동족상잔의 **흔적**
- ④ 꽃밭
⇒ 민족 공동체 모습이 회복된 공간
⇒ 평화로운 세계 : **통일**
⇒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**화해**의 세계

앞으로도 ①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'마일'은 더 날아야 한다. ②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. 목이 빠삭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

③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.

▶ 3연 : 고단한 현실을 곳곳하게 헤쳐 나가는 나비

- ①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'마일'은 더 날아야 한다
⇒ 우리 민족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**고난**의 길
- ②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
⇒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**분단**의 상황
- ③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.
⇒ 현실적인 남과 북의 상황으로 적대 세력 아래에 있는 땅
⇒ 남북의 **군사**적 대립

①벽, 벽…… 처음으로 ②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.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면 ③아방(我方)의 ④따스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.

▶ 4연 : 벽을 느끼면서도 날기를 멈추지 않는 나비

- ① 벽
⇒ **분단**된 조국의 상징
- ②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
⇒ 자신의 숙명에 대한 의식으로 우의적인 형상화 방법
- ③ 아방(我方)
⇒ 우리쪽
- ④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.
⇒ 괴로운 비행은 끝나지만 우리 민족의 **대립**은 계속될 것임을 암시
⇒ 따스하고 슬픈 : **역설**법

이런 마지막 '①꽃밭'을 ②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③어설픈 표시의 벽. ④기(旗)여……

▶ 5연 :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날아가는 비

- ① 꽃밭
⇒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**화해**의 세계
- ② 그리며
⇒ **평화**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
- ③ 어설픈 표시의 벽
⇒ 언젠가는 무너져야 할 **분단** 상황
⇒ 넘을 수 없는 절대벽이 아니고 **의지**만 있으면 넘을 수 있는 분단의 벽
- ④ 기
⇒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전해야 하는 우리의 숙명적 **평화**의 의지

박재삼 「울음이 타는 가을 강」

1 작품 분석

①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,
 ②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
 ③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,
 어느 새 등성이에 이르러 ④ 눈물나고나.
 ▶ 1연 :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
 산등성이에 올라 눈물을 흘림

- ①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
 ⇨ **허전** 하고 **쓸쓸** 한 화자의 심리 상황
- ②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
 ⇨ 인간사(人間事) : 슬픔과 한의 **원인** 이 됨
- ③ 가을 햇볕
 ⇨ 따스하지만 곧 사라질 햇볕
 ⇨ **소멸** 의 이미지, **종말** 의 이미지, 삶의 후반기, 슬
 픔 유발
- ④ 눈물나고나.
 ⇨ 서러움의 정서 : 전통적인 어조, 한(限)의 정서를 환기함

①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
 ② 해질녘 ③ 울음이 타는 가을 강(江)을 보겠네.
 ▶ 2연 : 북받치는 감정을 안고 노을이 비친
 가을 강의 아름다움에 빠짐

- ①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
 ⇨ **죽음** 의 이미지
- ② 해질녘
 ⇨ **소멸** 의 이미지
- ③ 울음이 타는 가을 강(江)
 ⇨ 삶의 **유한** 성이라는 근원적 한에 대한 인식
 ⇨ 삶에 대한 화자의 서러운 감정이 집약된 표현
 ⇨ 시각의 청각화 : **공감각** 적 심상

① 저것 봐, 저것 봐,
 ② 네보담도 내보담도
 ③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
 ④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,

이제는 ⑤ 미칠 일 하나로 ⑥ 바다에 다 와 가는,
 ⑦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.
 ▶ 3연 : 가을 강을 바라보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함

- ① 저것
 ⇨ 흘러가는 가을 강
- ② 네보담도 내보담도
 ⇨ 너의 서러움과 나의 서러움보다도 더 서러운 감정을 **삭이** 고 흘러가는 가을 강의 모습 강조
- ③ 그 기쁜 첫사랑
 ⇨ 사랑의 기쁨, **젊은** 날의 모습
- ④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
 ⇨ 사랑의 좌절, **중년** 의 모습
- ⑤ 미칠 일
 ⇨ 한탄
- ⑥ 바다에 다 와 가는
 ⇨ **노년** 의 모습
- ⑦ 소리 죽은 가을 강
 ⇨ 슬픔을 내면으로 **삭이** 고 인생의 **유한** 성을 절감
 하는 노년의 이미지

박재삼 「흥부 부부상」

1 작품 분석

- ① 흥부 부부가 ②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③ 웃음살을 헤아려 보자 ④ 금이 문제리.
- ⑤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,
- ⑥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⑦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

▶ 1연 : 박덩이를 사이 한 흥부 부부의 정갈한 웃음살

- ① 흥부 부부
⇒ **정신**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상
- ② 박덩이
⇒ 가난한 삶
- ③ 웃음살
⇒ 웃음의 물살
⇒ 안분지족하는 서민의 삶
- ④ 금이 문제리.
⇒ 금(**물질**적 풍요)를 중요시 여겨서 웃었겠는가? : 금보다, **사랑**과 **정**이 중요
- ⑤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,
⇒ 황금 벼이삭 : 누렇게 익은 벼이삭, **물질**적 풍요
⇒ 황금 벼이삭(**물질**적 풍요)를 중요시 여겨서 웃었겠는가? - 금보다, **사랑**과 **정**이 중요
- ⑥ 웃음의 물살
⇒ **소박**하고 순수한 웃음
- ⑦ 그것
⇒ 박덩이가 좋아서 웃는 **순수**한 웃음
⇒ 가난하지만 **순수**한 웃음

- ①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
- ② 손발 닳은 처지끼리
- ③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.

▶ 2연 : 가난하지만 서로를 잘 이해하는 흥부 부부

- ① 없는 떡방아 소리도 / 있는 듯이 들어내고
⇒ 가난해서 들어볼 수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것처럼 들

음 : **낙천**적 성격

- ② 손발 닳은 처지
⇒ 같이 힘든 상황
- ③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.
⇒ 서로에 대한 **이해**와 사랑
⇒ 서로 함께 웃어 마치 거울 면과도 같은 이들아

- ①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②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
- ③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④ 부끄러이던 먼 물살이 가다가 ⑤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
- ⑥ 본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
- ⑦ 그것은 확실히 ⑧ 문제다

▶ 3연 : 흥부 부부의 진정어린 눈물과 웃음

- ① 웃다가 서로 불쌍해
⇒ 현실 상황의 인식
- ② 구슬
⇒ 연민에서 흐르는 **눈물**
- ③ 절로 면에 온
⇒ 저절로 얼굴에 흐르는
- ④ 부끄러이던
⇒ 부끄러워하며
- ⑤ 소스라쳐
⇒ 깜짝 놀라 몸을 떨며
- ⑥ 본웃음
⇒ **눈물**을 극복한 후의 웃음
- ⑦ 그것
⇒ 가난한 삶의 한까지도 진정한 사랑으로 **극복**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
- ⑧ 문제
⇒ 반어적 문제가 아니라 **중요**한 것

백석 「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」

1 작품 분석

①가난한 내가

아름다운 ②나타샤를 ③사랑해서
오늘 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

▶ 1연 : 눈 내리는 밤에 떠올리는 나타샤에 대한 사랑

① 가난한 내

⇒ 화자의 처지

② 나타샤

⇒ 화자가 사랑하는 여인

⇒ 이국적, 환상적, 화자와 대조되는 이미지

③ 사랑해서 / 오늘 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

⇒ 폭폭 : 음성상징어 사용, **청각**적 심상

⇒ 사랑해서 눈이 내리는 것 : 비논리적 → 사랑의

순결함 강조, 순백의 **순수**한 이미지, 포근한 분위기(낭만적)

①나타샤를 사랑은 하고

②눈은 폭폭 날리고

③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(燒酒)를 마신다

소주를 마시며 ④생각한다

나타샤와 나는

⑤눈이 폭폭 쌓이는 밤 ⑥흰 당나귀 타고

⑦산골로 가자 ⑧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⑨마가리에 살자

▶ 2연 : 나타샤와 산골로 가서 살고 싶은 바람

①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

⇒ 뒤에 생략된 내용 -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다.

② 눈

⇒ 순수한 존재에 가해지는 **시련**

③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(燒酒)를 마신다

⇒ 소주 : **그리움**과 고뇌를 달래는 수단

⇒ 이유 : 사랑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

④ 생각한다

⇒ 나타샤와 함께한 때

⑤ 눈이 폭폭 쌓이는

⇒ 낭만적 분위기

⇒ 쌓인 눈 : 세상과의 **단절**

⑥ 흰 당나귀

⇒ 깨끗하고 **순수**한 존재

⇒ **산골**로 인도할 매개체

⇒ 화자의 소망과 기대감(상상)

⑦ 산골

⇒ 세상과 **단절**된 곳 : **순수** 세계, **이상**적 공간

⑧ 출출이

⇒ 땀새

⑨ 마가리에 살자

⇒ 마가리 : 오막살이

⇒ 나타샤와 함께 **산골**에서 살고 싶은 나(열망)

눈은 폭폭 날리고

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

①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

언제 벌써 내 속에 ②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

③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

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

▶ 3연 : 더러운 세상을 버리고 산골로 가려는 의지

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

⇒ 나타샤에 대한 **믿음**

② 고조곤히

⇒ 고요히

③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/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

⇒ 세상 : 부정적인 **외부** 현실, 나와 나타샤의 사랑의

장애물, **산골**과 대조

⇒ 상상 속 나타샤의 말

- 화자 **내면**의 소리(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)

- 산골로 가는 행위의 **정당**성 부여, 자기 위안

- **외부**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

- 사랑과 순수를 유지하려는 의지

①눈은 폭폭 날리고

②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

③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

▶ 4연 : 나타샤와 '나'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흰 당나귀의 축복

① 눈은 폭폭 날리고

⇒ 반복법 : **그리움**의 심화

②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

⇒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소망

③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

⇒ 나와 나타샤에 대한 축복, 화자의 심리 투영

변영로 「논개」

1

작품 분석

① 거룩한 분노는
종교보다도 깊고
② 불붙는 정(情)열은
사랑보다도 강하다
아,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
그 ③ 물결 위에
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
④ 그 마음 흘러라.

▶ 1연 : 논개의 분노와 애국심

- ① 거룩한 분노
⇒ **조국**을 위한 분노
- ② 불붙는 정(情)열
⇒ **조국**애, **민족**애
- ③ 물결 위
⇒ **강물**, **역사**
- ④ 그 마음
⇒ **조국**애, **민족**애
- 1연의 특징
⇒ 1, 2행과 3, 4행의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: **대구**법
⇒ 푸른 ↔ 붉은 : 색채 **대비**

아리따웠던 그 ①아미(娥眉)
② 높게 흔들리우며
그 석류(石榴)속 같은 입술
③ 죽음을 입 맞추었네
④ 아,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
그 물결 위에
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
그 마음 흘러라.

▶ 2연 : 논개의 의로운 죽음

- ① 아미(娥眉)
⇒ 미인의 눈썹, 분노와 정열의 **승화**
- ② 높게 흔들리우며
⇒ **의연**한 모습

- ③ 죽음을 입 맞추었네
⇒ 논개의 죽음의 **아름**다운 형상화
- ④ 아, 강낭콩꽃보다도 ~ 마음 흘러라
⇒ 표현법 : **반복**법 - **후렴**구와 같은 역할

흐르는 ①강(江)물은
②길이길이 푸르리니
③그대의 ④꽃다운 혼
⑤어이 아니 붉으랴
아,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
그 물결 위에
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
그 마음 흘러라!

▶ 3연 : 논개에 대한 추모

- ① 강(江)물
⇒ 강물, **역사**
- ② 길이길이 푸르리니
⇒ 역사의 **영원**함, 불변성
- ③ 그대
⇒ **청자**인 논개
- ④ 꽃다운 혼
⇒ 논개의 **영혼**
- ⑤ 어이 아니 붉으랴
⇒ 붉음 : 논개의 **정열**적인 **우국충정**
⇒ 질문 속에 답이 있음 : **설의**법

복효근 「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」

1 작품 분석

- ①천번 잔디밭을 밟고
 - ②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
 - ③외출기 길이 생겼다 어쩌나 잔디가 밟혀죽을 텐데
 - ④내 걱정 아랑곳없이
 - ⑤가르마길이 나고 그 자리만
 - ⑥잔디가 모두 죽었다
- ▶ 사람들이 잔디를 훼손함

- ① 천번
⇒ 냇가
- ② 사람들
⇒ 자연을 **소홀**히 대함
- ③ 외출기 길 ⑤ 가르마길
⇒ 사람들이 다닌 **흔적**
- ④ 내 걱정
⇒ 잔디를 **소중**하게 생각하는 화자의 **안타까움**
- ⑥ 잔디가 모두 죽었다
⇒ 인간의 **자연** 훼손에 대한 문제 의식

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①그 길을 걷는데
②멀리서도 보였다
죽은 잔디싹들이 사람의 몸 속에
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는 것이
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
저 삶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③청량하라
걷는 사람들의 ④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
⑤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
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
⑥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있거나
⑦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

▶ 잔디가 사람의 몸속에서 꽃을 피움

- ① 그 길
⇒ 어제 본 그 길
- ② 멀리서도 보였다 / ~ 살아있는 것
⇒ 인식의 **변화**

- ⇒ 어순의 배치 순서를 바꿈 : **도치**법
- ③ 청량하라
⇒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(맑고 깨끗할 수 없다) : 질문 속에 답이 있음 - **설의**법
- ④ 웃음소리 얘기소리
⇒ **잔디**로 인한 맑은 말소리와 웃음 소리
- ⑤ 싱싱한 풀꽃 냄새
⇒ **생명**감
- ⑥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있거나
⇒ 잔디의 **배려**
- ⑦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
⇒ 사람들의 **몸**속에 **꽃**으로 잔디가 피어났음을 깨달음 : 자연의 순환론적 질서에 대한 인식

그렇듯 언젠가는 ①사람들도
②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다
③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

▶ 사람들이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 줄 것을 기대함

- ① 사람들
⇒ 자연을 **소중**히 여길 사람
- ②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
⇒ 자연에 대해 **관심**을 가질 것, 자연에 대한 사람의 **배려**, 인간과 자연의 **순환**적 질서
- ③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
⇒ **죽음**이 **생명**이 되는

서정주 「무등을 보며」

1 작품 분석

가난이야 한낱 ①남루(襤褸)에 지나지 않는다.
저 눈부신 햇빛 속에 ②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
있는

③여름 산 같은

④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까지야 다 ⑤가릴
수 있으랴.

▶ 1연 : 가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

① 남루(襤褸)

⇒ 낡아 해진 옷(누더기) : **버릴** 수 있는 것

② 갈매빛

⇒ 짙은 초록 빛

⇒ 갈매빛 : 색(빛)깔 표현 사용, **시각**적 심상

③ 여름 산

⇒ 무등산

④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

⇒ 인간의 **순수**한 마음

⑤ 가릴 수 있으랴

⇒ 가릴 수 없다

⇒ 질문 속에 답이 있음 : **설의** 법

청산이 그 무릎 아래 ①지란을 기르듯
우리는 ②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.

▶ 2연 : 인생의 긍정 정신

① 지란

⇒ 지초(芝草)와 난초(蘭草)를 아울러 이르는 말

② 우리 새끼

⇒ 자식, 혈육애

목숨이 가다 가다 ①농울쳐 휘어드는

②오후의 때가 오거든

내외들이여 그대들도

더러는 앉고

더러는 차라리 ③그 곁에 ④누워라

▶ 3연 : 가난한 생활의 모습

① 농울쳐

⇒ 큰 물결이 거칠게 일어나다 : 굽어 허기 져서 힘든

② 오후의 때

⇒ 가장 **힘든** 때

③ 그 곁

⇒ **오후**의 때, 힘듦, 무등산

④ 누워라

⇒ **명령**형 어조 : 고통을 받아들이라

①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이 우러러 보고,

②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.

▶ 4연 : 부부의 사랑과 믿음

①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이 우러러 보고,

⇒ 지어미는 지애비를 : 내외(혈육애)

⇒ 물끄러이 우러러 보고 : **믿음**

②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.

⇒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: **위로**

⇒ 짚어라 : **명령**형 어조

어느 ①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

우리는 늘 ②옥돌같이 ③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이
요

④청태(靑苔)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.

▶ 5연 : 가난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긍정적 자세

① 가시덤불 쑥구렁

⇒ **가난**

② 옥돌

⇒ **고결**한 정신 : 1연 4행 '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
난 마을'

③ 호젓이

⇒ 쓸쓸하게

④ 청태(靑苔)

푸른 빛의 이끼 : **품위**와 지조, 삶의 **보람**

송수권 「까치밥」

1 작품 분석

고향이 ①고향인 줄도 모르면서
 긴 장대 휘둘러 ②까치밥 따는
 서울 조카아이들이여
 그 까치밥 따지 ③말라
 ④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
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
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
 ⑤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
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
 그것은 ⑥ 따뜻한 등불이었으니

▶ 1~10행 : 날짐승들의 등불인 까치밥

- ①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
⇒ 고향의 참된 **의미**를 모르면서
- ② 까치밥
⇒ 날짐승을 위해 남겨 두는 감
- ③ 말라
⇒ ~어라, ~아라 : **명령**형 어미
- ④ 남도의 빈 ~ 얼마나 허전할까
⇒ 까치밥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 : **허전**함
- ⑤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
⇒ **힘든** 삶의 모습
- ⑥ 따뜻한 등불
⇒ 까치밥의 의미 : 날짐승에게 베푸는 **인정**과 **배려**
(**공존**의 가치)

①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
 그 까치밥 따지 말라
 ②사랑방 말쿠지에 ③짚신 몇 죽 걸어놓고
 ④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
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⑤길손의 길보시가 되고
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짊어지고
 ⑥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라

▶ 11~17행 : 타인에 대한 배려가 담긴 할아버지의 짚신

- ①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/ 그 까치밥 따지 말라

⇒ 표현법 : 1연 3, 4행과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
- **대구**법

⇒ 말라 : ~어라, ~아라 - **명령**형 어미

② 사랑방 말쿠지

⇒ 벽에 걸어놓은 못

③ 짚신

⇒ 까치밥과 같은 **인정**과 **배려**

④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

⇒ 죽기 전에도 타인을 **배려**하는 삶을 살았음

⑤ 길손의 길보시

⇒ 길손에게 짚신을 줌

⑥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라

⇒ 할아버지의 **배려**가 아버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침

①아이들이,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

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
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

②겨울 하늘에 떠서

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③머나먼 길

이렇게 ④등 따숨게 비춰주고 있지 않으나

▶ 18~23행 : 인생의 등불 같은 까치밥

① 아이들

⇒ **날짐승**과 **아이**들 : **중의**적 표현, 돈호법

② 겨울 하늘

⇒ **인정**이 있는 삶의 공간

③ 머나먼 길

⇒ 삶의 **여정**

④ 등 따숨게 비춰주고 있지 않으나

⇒ 인생의 **등불** 같은 존재

신경림 「농무」

1

작품 분석

징이 울린다. ①막이 내렸다.
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
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②텅 빈 운동장
 우리는 ③분이 얼룩진 얼굴로
 ④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.
 ⑤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.

▶ 1~6행 :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시는 답답한 심정

- ① 막이 내렸다.
 - ⇒ 농민의 자조적인 한탄과 원한의 몸짓을 나타내기 위한 예고의 의미
 - ⇒ 쇠락한 농촌의 현실 암시
- ② 텅 빈 운동장
 - ⇒ **소외**감, 공허감
 - ⇒ 농촌의 현실
- ③ 분 중의법 : **화장**, **분노** (울분)
- ④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
 - ⇒ 이유 :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, 절망과 울분을 잊기 위해
- 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
 - ⇒ 직설적 감정 토로

①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르면
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②조무래기들뿐
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
 철없이 킬킬대는구나.

▶ 7~10행 : 장거리에서 느끼는 쓸쓸함

- ①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르면
 - ⇒ 이유 : 한, 부조리에 대한 **울분**을 풀려고
- ② 조무래기들뿐 /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/ 철없이 킬킬대는구나.
 - ⇒ 조무래기 : 젊은 남성들은 도시로 떠남
 - ⇒ 농민의 소외감, 울분, 애환을 **이해**하지 못하는 존재
 - ⇒ 예전과 달라진 농촌의 모습

①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

②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
 ②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
 ③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.
 ④비료값도 만나오는 농사따위야
 아예 어떤네에게나 맡겨 두고

▶ 11~16행 :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

- ① 보름달
 - ⇒ 자아와 대립되는 배경
 - ⇒ '산구석에 처박혀'와 대조
 - ⇒ 부정적인 상황을 더욱 강조
- ② 걱정이 / ②서림이
 - ⇒ 걱정이 (임걱정), 서림이(걱정의 부하) : 민중들의 한과 슬픔이 **일회**적이 아니라 민중의 삶과 함께 해 온 **역사**적인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배려
- ③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
 - ⇒ 직설적 감정 토로
 - ⇒ 자신들의 삶을 자학하거나 **체념**
 - ⇒ **자조**적 현실 인식
 - ⇒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쳐도 의미가 없다
 - ⇒ 질문 속에 답이 있음 : **설의**법
- ④ 비료값도 만나오는 농사
 - ⇒ 시의 발상 동기, 현실에 대한 인식
 - ⇒ 농사를 지어 봤자 **경제**적 이익을 얻지 못함 : 부조리한 농촌 현실

①쇠전을 거쳐 ②도수장 앞에 와 돌 때
 ③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.
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.
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.

▶ 17~20행 : 농무를 통해 달래는 분노와 한

- ① 쇠전
 - ⇒ 대장간
- ② 도수장
 - ⇒ 도살장
- ③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.
 - ⇒ 집단적 한, 슬픔, 분노의 **반어**적 표현
 - ⇒ 농민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

신동엽 「껍데기는 가라」

1 작품 분석

- ①껍데기는 가라.
- ②사월도 ③알맹이만 남고
- ④껍데기는 가라.

▶ 1연 : 4·19 혁명의 순수 정신 강조

- ① 껍데기
 - ⇒ 허위, 가식, 외세, 불의, 독재, 반민족
- ② 사월
 - ⇒ 4·19혁명
- ③ 알맹이
 - ⇒ 진실, 순수, 본질, 민족 정신
- ④ 껍데기는 가라.
 - ⇒ 강한 거부와 저항의 감정
 - ⇒ 표현법 : 1행과 4행의 시행 반복법
 - ⇒ 가라 : 어조(~어라, ~아라) : 명령형 어조
 - ⇒ 화자의 단호한 의지 강조

껍데기는 가라.
 ①동학년(東學年) ②곰나루의, ③아우성만 살고
 껍데기는 가라.

▶ 2연 : 동학 혁명의 순수 정신 강조

- ① 동학년(東學年)
 - ⇒ 동학 혁명
- ② 곰나루
 - ⇒ 동학혁명의 진원지
- ③ 아우성
 - ⇒ 동학 혁명의 순수한 정신(열정)
 - ⇒ 반봉건 / 반외세

그리하여, ①다시
 껍데기는 가라.
 ②이곳에선, ③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
 ④아사달 아사녀가
 ⑤중립(中立)의 초례청 앞에 서서
 ⑥부끄럼 빛내며

⑦맞결할지니

▶ 3연 : 우리 민족의 순수함 강조와 통일의 소망

- ① 다시
 - ⇒ 내용상 2행과 연결 : 행간 걸침
- ② 이곳
 - ⇒ 한반도
- ③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
 - ⇒ 허위와 가식이 없는 : 순수함
- ④ 아사달 아사녀
 - ⇒ 순수한 우리 민족의 상징
- ⑤ 중립(中立)의 초례청
 - ⇒ 이념을 초월한 민족 화해의 장소
- ⑥ 부끄럼
 - ⇒ 순수한 부끄러움
- ⑦ 맞결
 - ⇒ 통일, 화합

껍데기는 가라.

- ①한라에서 백두까지
- ②향그러운 흉가슴만 남고
- 그 ③모오든 ④쇠붙이는 가라.

▶ 4연 : 순수의 옹호와 부정한 권력의 거부

- ① 한라에서 백두
 - ⇒ 한반도 전체(조국) : 민족 분단의 극복의지
- ② 향그러운 흉가슴
 - ⇒ 민중의 순수함(민족애)
- ③ 모오든
 - ⇒ 모든 : 시적 허용
- ④ 쇠붙이
 - 부정한 세력, 무력, 외세

신석정 「대숲에 서서」

1 작품 분석

- ① 대숲으로 간다
- ② 대숲으로 간다.
- ③ 한사코 성근 대숲으로 간다
 - ▶ 1연 : 대숲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

- ① 대숲
 - ⇒ 화자가 **지향**하는 세계
- ② 대숲으로 간다
 - ⇒ 표현법 : 1행과 2행의 시행 **반복**법
- ③ 한사코 성근 대숲으로 간다
 - ⇒ 한사코 : 소망의 **결실**함 강조

- ① 자욱한 밤안개에 벌레 소리 젖어 흐르고
벌레 소리에 푸른 달빛이 배어 흐르고
 - ▶ 2연 : 고요한 대숲의 풍경

- ① 자욱한 밤안개에 벌레 소리 젖어 흐르고 / 벌레 소리에 푸른 달빛이 배어 흐르고
 - ⇒ 벌레 소리에 푸른 달빛 : **공감각**적 표현
 - ⇒ 벌레 소리 → 벌레 소리 : **연쇄**법

- 대숲은 좋더라
- ① 성글어 좋더라
- ②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더라
 - ▶ 3연 : 대숲을 좋아하는 이유

- ① 성글어 좋더라
 - ⇒ 서로 **거리**를 두고 서 있는 모습에서 **고독**감을 느낌
- ②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더라
 - ⇒ **강직**하지만 **고독**하게 서 있는 대(나무)의 모습
 - ⇒ 서러워 대숲은 좋더라 : **역설**적 표현

- 꽃가루 날리듯 흥근히 드는 달빛에
기척 없이 서서 ①나도 대같이 살거나
 - ▶ 4연 : 대처법 살고 싶은 소망

① 나도 대같이 살거나 **곧고**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

심훈 「그날이 오면」

1 작품 분석

- ①그 날이 오면, 그 날이 오면은
- ②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
- ③한강물이 ④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
- 이 목숨이 끊이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
- 나는 ⑤밤하늘에 ⑥날으는 ⑦까마귀 같이
- ⑧종로의 인경을 ⑨머리로 드리받아 올리오리다.
- ⑩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
- ⑪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.

▶ 1연 : 조국 광복에 대한 갈망과 자기 희생의 의지

- ① 그 날이 오면, 그 날이 오면은
 - ⇒ 그 날 : **광복**
 - ⇒ 오면 : 가정법
 - ⇒ 표현법 : 시구 **반복** 법 - **간절** 한 염원
- ②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
 - ⇒ 삼각산 : 북한산 → **우리나라**
 - ⇒ 표현법 : **의인** 법
- ③ 한강물
 - ⇒ 한강 → **우리나라**
- ④ 뒤집혀 용솟음칠
 - ⇒ 역동적 심상
- ⑤ 밤하늘
 - ⇒ 시대 상황 : 일제 강점기
- ⑥ 나는
 - ⇒ 나는 : **시적** 허용
- ⑦ 까마귀
 - ⇒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고독한 자아의 모습 : **희생**의 심상
- ⑧ 종로의 인경
 - ⇒ 보신각 종
- ⑨ 머리로 드리받아 올리오리다
 - ⇒ 이유 : 광복의 **기쁨**을 널리 알리기 위해
- ⑩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
 - ⇒ 비장한 **결의**
- ⑪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.
 - ⇒ **광복**에 대한 염원

그 날이 와서, ①오호 그 날이 와서
 ②육조 앞 넓은 길을 ③울며 뛰며 덩굴어도
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
 ④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기어
 커다란 ⑤북을 만들어 돌쳐메고는
 ⑥여러분의 행렬에 ⑦앞장을 서오리다.
 ⑧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
 ⑨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.

▶ 2연 : 조국 광복의 환희와 기쁨

- ① 오호
 - ⇒ 감탄사의 사용 : **영탄** 법
- ② 육조
 - ⇒ 조정(국가의 상징)
- ③ 울며 뛰며 덩굴어도
 - ⇒ 감격의 구체화(역동적)
- ④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기어
 - ⇒ **희생**의 의지
- ⑤ 북
 - ⇒ 외침의 표현(1연 6행의 '인경')
- ⑥ 여러분
 - ⇒ **광복**을 기뻐하는 우리 민족
- ⑦ 앞장을 서오리다
 - ⇒ **선구자**적 자세
- ⑧ 우렁찬 그 소리
 - ⇒ **기쁨**의 함성
- ⑨ 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
 - ⇒ **광복**에 대한 염원

유하 「빠빠용 - 영화 사회학」

1 작품 분석

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①표범 한 마리
 물난리의 복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
 ②수재에 수재(獸災)가 겹쳤다고 했지만, 일순 마주친
 ③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④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
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⑤자유가
 무엇이길래, 잡히고 또 잡혀도
 ⑥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빠용처럼
 ⑦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
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⑧드가
 그러나 ⑨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
 빠빠용, ⑩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
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
 ⑪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
 ⑫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
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
 ⑬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
 ⑭거봐, 결국 죽잖아!

▶ 1연 : 텔레비전 보도를 보며 영화 빠빠용을 떠올림

- ① 표범 한 마리
⇒ **빠빠용** 과 연결되어 삶을 인식하는 계기
- ② 수재에 수재(獸災)
⇒ 수재 : **물** 로 인한 재해
⇒ 수재(獸災) : **짐승** 으로 인한 재해
- ③ 우리 속 세 마리 표범
⇒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
- ④ 우울한 눈빛
⇒ **구속** 과 **억압** 을 받고 있기 때문
- ⑤ 자유가 무엇이길래
⇒ **행간** 걸침
- ⑥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빠용처럼
⇒ 빠빠용의 선택 : **자유** 를 얻는 과정의 험난함
- ⑦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
⇒ 표범의 선택 : **자유** 를 얻는 과정의 험난함
- ⑧ 드가
⇒ 탈출 실패, 포기, 감옥에 남은 인물, 현실에 **안주** 하

- 는 인물
- ⑨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
⇒ 이유 : 화자가 '**드가**'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
- 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
⇒ 현실 **안주** 의 삶
- ⑪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
⇒ **순응** 적 현실, 현실 **안주** 의 공간
- ⑫ 친근감 넘치는
⇒ 이유 : 자신과 같은 **처지** 이기 때문
- ⑬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
⇒ **자유** 를 얻는 길의 험난함
- ⑭ 거봐, 결국 죽잖아!
⇒ 현실 **순응** 의 태도 : 표범을 비난하는 것은 아님

①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,
 ②내가 드가?
 ▶ 2연 : 텔레비전이라는 우리 속에 갇힌 자신을 깨달음

- ①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
⇒ **TV** 에 지배당하는 현대인의 모습
- ② 내가 드가?
⇒ 현실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**부정** 적으로 봄

자기학습용 - 빈칸 답지

윤제림 「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」

1 작품 분석

손이 어는지 터지는지 세상모르고 함께 놀다가 이룰테면, ①고누놀이나 ①딱지치기를 하며 놀다가 “저녁 먹어라” 부르는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 달아나던 ②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. ③상복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사내아이한테서.

▶ 1행 : 영안실에서 상복을 입은 사내아이를 통해 친구를 떠올림

- ① 고누놀이 / ① 딱지치기
 - ⇒ 유년 시절의 추억
- ② 친구의 뒷모습
 - ⇒ 어린 시절의 친구의 모습을 **회상**
- ③ 상복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사내아이한테서.
 - ⇒ 친구의 아들
 - ⇒ 죽은 친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존재 : 친구에 대한 **그리움** 부각
 - ⇒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영안실을 찾아가던 화자가 친구의 아들을 보고 옛날에 같이 놀던 그리운 친구의 모습을 회상
 - ⇒ 어순의 배치를 바꿈 : 상복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사내아이한테서 뛰어 달아나던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- **도치** 법

누런 변기 위 ‘상복 대여’ 따위 스티커 너저분한 ①화장실 타일 벽에 “똥 누고 올게” 하고 제집 뒷간으로 내뺐더니 영 소식이 없던 날의 ②고누판이 어른거렸습니다.

▶ 2연 : 화장실 타일 벽에서 어린 시절에 친구와 가지고 놀던 고누판을 떠올림

- ① 화장실 타일 벽
 - ⇒ 과거 **회상**의 매개체
- ② 고누판
 - ⇒ 유년 시절의 추억

“①짜식, 정말 치사한 놈이네!” 영안실 뒷마당 높다란 옹벽을 때리며 날아와 ②떨어지는 낙엽들이 친구가 던져

두고 간 ③딱지장처럼 내 발등을 덮고 있었습니다. “④이 딱지, 너 다 가져!”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.

▶ 3행 : 떨어지는 낙엽을 딱지처럼 느끼며 친구의 목소리를 들음

- ① 짜식, 정말 치사한 놈이네!
 - ⇒ **과거**의 어느 날에 놀다가 먼저 가 버린 친구를 향해 던진 화자의 말 : 놀다가 가버린 친구에 대한 **원망**과 **아쉬움**
 - ⇒ **현재**의 상황에서 화자를 두고 먼저 죽어버린 친구에게 던지는 화자의 말 : 친구와 사별한 현재의 **원망**과 **서러움**
- ② 떨어지는 낙엽
 - ⇒ **죽음**의 이미지
- ③ 딱지장
 - ⇒ 유년 시절의 추억
- ④ 이 딱지, 너 다 가져!
 - ⇒ 죽은 친구의 환청을 인용 : 죽은 친구에 대한 간절한 **그리움**

이동순 「개밥풀」

1 작품 분석

①아닌 밤중에 일어나
 실눈을 뜨고 논귀에 쿵쿵거리며
 맴도는 ②개밥풀
 떠도는 발끝을 물밑에 닿으려 하나
 ③미풍에도 저희끼리 밀고 밀리며
 논귀에서 맴도는 개밥풀
 ④방게 물장군들이 지나가도
 ⑤결코 스크럼을 푸는 일 없이
 오히려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
 휘파람 불며 불며 저어 가노라.

▶ 1~10행 : 개밥풀의 생태

- ① 아닌 밤중에
 ⇨ 뜻하지 않은 때에, 뜻밖의 때에
- ② 개밥풀
 ⇨ **억압** 받는 민중의 상징 : 눈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민중
- ③ 미풍에도 저희끼리 ~ 맴도는 개밥풀
 ⇨ 서로 부대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들
- ④ 방게 물장군들
 ⇨ 민중을 **위협** 하는 존재
- ⑤ 결코 스크럼을 ~ 저어 가노라
 ⇨ 스크럼 : 여럿이 팔을 바삭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
 - **연대** 의식
 ⇨ 어떤 억압에도 **연대** 의식을 가지고 유유자적 살아가는 민중 : 민중의 끈질긴 **생명** 력

벗짚 사이로 빠지는 열기
 음력 사월 무논의 ①개밥풀의 함성
 논을 수확을 위하여
 ②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
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

▶ 11~15행 : 자유를 위한 희생

- ① 개밥풀의 함성
 ⇨ 더 강해진 민중의 **생명** 력

- ② 우리는 우리의 ~ 소중히 간직하더니
 ⇨ 자유를 위해 **몸** 을 버림 : **역설** 법

어느 날 ①큰비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 놓았다.
 개밥풀은 이리저리 ②전복되어
 도처에서 그의 잎파라이를 ①햇살에 ②널리우고
 더러는 ①장강의 소용돌이에 ②휘말렸다.
 어디서나 ②휘물리고 부딪치며 부서지는
 개밥풀 개밥풀 ①장마 끝에 개밥풀
 자욱한 벗짚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고
 논바닥을 파헤쳐도 우리에게엔 그림자가 없다.
 ③추풍이 우는 달밤이면
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.
 옷깃으로 눈물을 찍어내며
 ③귀뚜라미 방울새의 비비는 바람
 그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.

▶ 16~28행 : 고통과 시련 속에서 버티는 끈질긴 생명력

- ① 큰비 / ① 햇살 / ①장강의 소용돌이 / ①장마
 ⇨ 개밥풀(**민중**)을 **억압** 하는 세력
- ② 전복되어 / ② 널리우고 / ②휘말렸다 / ②휘물리고 부딪치며 부서지는
 ⇨ 개밥풀(**민중**)의 **시련**
- ③ 추풍이 우는 달밤 / ③ 귀뚜라미 방울새
 ⇨ 개밥풀(**민중**)을 숨죽이게 하는 존재, 배경

씨앗이 굶어도 개밥풀은 개밥풀
 ①너희들 ②봄의 번성을 위하여
 ③우리는 ④겨울 논바닥에 ⑤말라붙는다.

▶ 29~31행 : 꿈과 자유를 위한 헌신

- ① 너희들
 ⇨ 개밥풀, **민중**
- ② 봄의 번성
 ⇨ 부활, **희망**
- ③ 우리
 ⇨ 개밥풀(**민중**)과 동일시된 화자
- ④ 겨울 논바닥
 ⇨ **부당** 한 현실
- ⑤ 말라붙는다
 ⇨ 헌신 - **봄** 을 위해 시련을 **견뎌**

이성부 「봄」

1

작품 분석

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

②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③ 너는 온다

▶ 1연 :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 - 봄이 오는 당위성

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

⇒ 자연의 섭리 - 계절의 **순환**

②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

⇒ **절망**적 상황

③ 너

⇒ **봄** : 표현법 - **의인**법

①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

①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

①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하고,

②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

다급한 사연 듣고 ③ 달려간 바람이
흔들어 깨우면

④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

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

▶ 2연 : 더디게 오지만 마침내 오는 봄 - 봄이 오는 과정

① 어디 빨발 구석 / ①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 / ① 한눈 좀
팔고 싸움도 한 판

⇒ **고난**, **시련**, **역경**

②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

⇒ 주체 : **봄** - **의인**법

③ 달려간 바람

⇒ 사연 **전달**의 매개체

④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

⇒ 너 : **봄** - **의인**법

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

⇒ 봄의 **확신**

① 너를 보면 눈부셔

②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

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

③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

④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

⑤ 너,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

▶ 3연 :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

① 너

⇒ **봄** : 표현법 - **의인**법

⇒ 빨발 구석이나 썩은 물웅덩이에 한눈을 팔고 싸움도 하는 **현실**적 존재

②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

⇒ 봄은 오랜 **기다**림 끝에 온다

⇒ 화자의 간절하고 절실한 **기다**림

③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

⇒ **감격**스러움

④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

⇒ 봄을 맞이하는 **기쁨**의 행동

⑤ 너,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

⇒ 온갖 **역경**을 이겨내고 온 **봄** : **의인**법

이수복 「봄비」

1 작품 분석

이 ①비 그치면
 내 마음 ②강나루 긴 언덕에
 ③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④것다.

▶ 1연 :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올 강나루

- ① 비
 - ⇒ 시상 유발의 매개체 : **애상**적 분위기 조성
- ② 강나루
 - ⇒ 실재가 아닌 관념적 공간 (원관념 : 내 마음)
 - ⇒ 전통적 **이별**의 이미지
- ③ 서러운 풀빛
 - ⇒ **감정** 이입 : **애상**적 정서
- ④ 것다
 - ⇒ ‘~것다’의 담담한 말투 반복 : **각**운 효과,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 **절제**

①푸르른 보리밭 길
 맑은 하늘에
 ②종달새만 무에라고 지껄이것다.

▶ 2연 : 종달새가 지껄이는 푸른 보리밭과 맑은 하늘

- ① 푸르른 보리밭 길
 - ⇒ 화자의 정서와 상반되는 싱그러운 **생명**의 이미지
- ② 종달새
 - ⇒ 봄의 **소생**을 알리는 소재

이 비 그치면
 ①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②꽃밭 속
 ③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

▶ 3연 : 처녀 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는 꽃밭

- ① 시새워 병글어질
 - ⇒ 시샘하듯 앞 다투어 피어날
 - ⇒ 시각적이며 동적 이미지 유발, 피어나는 꽃의 다양한 모습과 처녀애들의 무르익은 육체를 동시에 연상
- ② 꽃밭

⇒ **봄**의 자연

③ 처녀애들

⇒ ‘꽃’과 짝을 이루는 싱그러운 **생명**력의 표상 : 고운 처녀애들로 인해 화사하고 요염한 봄은 찬란한 아름다움을 더함, 봄의 **봄**다움이 가장 선명하게 묘사됨

①임 앞에 타오르는
 ②향연(香煙)과 같이
 땅에선 또 ③아지랑이 타오르것다.

▶ 4연 : 향연같이 타오르는 아지랑이

- ① 임
 - ⇒ **그리**움의 대상
- ② 향연(香煙)
 - ⇒ 봄에 **아지랑이**가 피어오르는 모습처럼 님 앞에 **향연**(향의 연기)가 피어오르고 있음
 - ⇒ 임의 **죽음** 암시 : 봄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**승화**함으로써 절망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차단
- ③ 아지랑이
 - ⇒ 풀, 종달새, 꽃 등과 함께 봄의 소생을 알리는 상승적 이미지 : 화자의 **슬픔**과 **한**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킴

이육사 「교목」

1 작품 분석

- ①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
- ②세월에 ③불타고 우뚝 남아서서
- ④차라리 ⑤봄도 ⑥꽃피진 말아라

▶ 1연 : 강인한 삶의 의지

- ① 푸른 하늘
 - ⇒ **이상** 과 영원의 세계
 - ⇒ 당당한 교목의 모습
- ② 세월
 - ⇒ **시련**, 역경
- ③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
 - ⇒ **상처** 를 입고도 **강인** 한 자세로(굳은 의지로)
- ④ 차라리
 - ⇒ 단호한 **의지** 를 드러내는 부사
- ⑤ 봄
 - ⇒ 행복, 좋은 시절
- ⑥ 꽃피진 말아라
 - ⇒ 꽃 : 화려한 결실, 개인적 **영화**
 - ⇒ 말아라 : 부정형 종결 - 단호한 **의지**
 - ⇒ '~라'의 반복 : 일정한 종결 어미 반복 - **각운**
 - ⇒ 생명을 버릴지라도 **비굴** 하지 않는 말자는 내면적 다짐 (3연 2행과 유사)

- ①낮은 거미집 휘드르고
- ②끝없는 꿈길에 혼자 ③설레이는 마음은 ④아예 ⑤뉘우침이 아니라

▶ 2연 : 후회 없는 삶의 결의

- ① 낮은 거미집 휘드르고
 - ⇒ 현실의 어려움 : **투쟁** 의 삶이기 때문
- ② 끝없는 꿈길
 - ⇒ 자유, **광복**, **독립** 을 향한 마음 = 푸른 하늘
- ③ 설레이는
 - ⇒ 설레는 : **시적** 허용
- ④ 아예
 - ⇒ 단호한 **의지** 를 드러내는 부사

- ⑤ 뉘우침이 아니라
 - ⇒ **후회** 하지 않음
 - ⇒ 아니라 : 부정형 종결 - 단호한 **의지**
 - ⇒ '~라'의 반복 : 일정한 종결 어미 반복 - **각운**

- ①검은 그림자 ②쓸쓸하면
- ③마침내 ④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
- ⑤차마 ⑥바람도 흔들진 ⑦못해라
- ▶ 3연 : 죽음마저 불사하는 단호한 결의

- ① 검은 그림자
 - ⇒ 어려운 현실 상황
- ② 쓸쓸하면
 - ⇒ 외로우면(힘들면)
- ③ 마침내
 - ⇒ 단호한 **의지** 를 드러내는 부사
- ④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
 - ⇒ **죽음** 이 오더라도(1연 3행과 유사)
- ⑤ 차마
 - ⇒ 단호한 **의지** 를 드러내는 부사
- ⑥ 바람
 - ⇒ 유혹, 외부의 힘 : **일제** 의 탄압
- ⑦ 못해라
 - ⇒ 못해라 : 부정형 종결 - 단호한 **의지**
 - ⇒ '~라'의 반복 : 일정한 종결 어미 반복 - **각운**

장석남 「수묵 정원 - 9 번짐」

1 작품 분석

- ①번짐,
- ②목련꽃은 번져 ③사라지고
여름이 되고
- ④너는 내게로
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
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

▶ 1~6행 : 번짐의 모습 1 - 봄(목련꽃)과 여름, 나와 너

- ① 번짐
⇒ 표현법 : 시어의 **반복** 법 : 의미 강조
- ② 목련꽃
⇒ **봄**의 표상
- ③ 사라지고
⇒ 봄이 지나감
- ④ 너는 내게로 /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/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
⇒ **공감**과 **포용**으로 **조화**를 이루는 인간 관계

- 번짐,
- ①번져야 살지
꽃은 번져 ②열매가 되고
- ③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

▶ 7~10행 : 번짐의 모습 2 - 꽃과 열매, 여름과 가을

- ① 번져야 살지
⇒ 번지는 행위가 존재의 **생명**력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됨
- ② 열매
⇒ ‘꽃’이 이루어낸 **결과**물
⇒ 생명의 **원천**인 ‘씨앗’을 잉태한 존재
- ③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
⇒ 계절의 **연속**성

- 번짐,
- ①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
- ②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

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
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
또 한번 —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

▶ 11~16행 : 번짐의 모습 3 - 음악과 그림, 삶과 죽음, 저녁과 밤

- ①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
⇒ 예술 작품도 삶의 **본질**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며 서로 **연결**되어 있음을 보여줌
- ②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/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/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
⇒ 삶과 죽음은 단절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, 삶은 죽음으로 죽음은 다시 삶으로 **이어**짐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삶을 **아름답**게 만들고 있음

- 번짐,
- ①번져야 사랑이지
- ②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
- ③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

▶ 17~20행 : 번짐의 모습 4 - 산기슭의 오두막과 봄 나비

- ① 번져야 사랑이지
⇒ ‘번짐’이 **사랑**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됨
- ②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
⇒ **인간**의 세상
- ③ 봄 나비 한 마리
⇒ **자연**의 섭리

정일근 「흑백사진 - 7월」

1

작품 분석

①내 유년의 7월에는 ②넋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③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④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심 없이 흘러갔다.

▶ 미루나무가 있고 넋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정경

- ① 내 유년의 7월
⇒ 시간적 배경, **회상** 적
- ② 넋가
⇒ 공간적 배경
- ③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
⇒ 하늘의 **구름** 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제시 : **시각** 적 심상
- ④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심 없이 흘러갔다
⇒ 감각적 표현 : **시각** 적 심상

①넋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, ②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 버리면 과수원을 지나 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③차르르 차르르 ④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돌고 물 아래까지 ⑤헤엄쳐 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뽕뽕뽕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.

▶ 바람이 불어오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하늘을 바라봄

- ① 넋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
⇒ 동요 가사, 화자의 **동심**
- ②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 버리면
⇒ 노래를 시각적으로 형상화(역동적 심상)
- ③ 차르르 차르르
⇒ 의성어(잎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) : **청각** 적 심상
- ④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돌고
⇒ 자연에 **동화** 된 **동심** 의 모습
- ⑤ 헤엄쳐 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
⇒ 걱정이나 근심 없는 모습

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, 귀에 들어간 물을 뿜으려 ①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 오던 ②따뜻한 오수,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③분교의 풍금 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④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.

▶ 따뜻한 낮잠이 있는 평화로운 유년의 하루

- ① 햇살에 데워진
⇒ 감각적 표현 : **촉각** 적 심상
- ② 따뜻한 오수
⇒ 놀다가 낮잠에 빠짐
- ③ 분교의 풍금 소리 쌓이고
⇒ 감각적 표현 : **공감각** 적 심상 - 청각의 시각화
- ④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
⇒ **더위** 마저 잊은 채 잠들었다
⇒ 내가 잠이 든 것을 7월이 잠이 든 것으로 표현 : **주객 전도**

정지용 「비」

1 작품 분석

① 돌에
그늘이 차고,

- ① 돌에 / 그늘이 차고,
⇒ 그늘 : **비구름**의 그늘
⇒ 돌에 비구름의 그늘이 차오르는 모습

① 따로 물리는
② 소소리 바람.

▶ 1~2연 : 비 내리기 직전

- ① 따로 물리는
⇒ **바람**에 나뭇잎이 한 곳으로 물리는 모습
- ② 소소리 바람
⇒ **비**내리기 직전의 스산한 바람

① 앞 섰거니 하여
꼬리 치날리어 세우고,

- ① 앞 섰거니 하여 /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,
⇒ 빗방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튄 모습을 걸음이 급한 **새**의 치켜 올린 **꼬리**로 표현

① 종중다리 까칠한
② 산새 걸음걸이.

▶ 3~4연 :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

- ① 종중다리 까칠한
⇒ 빨리 걷는 **다리** 모습
- ② 산새 걸음걸이
⇒ 세찬 빗줄기를 가늘고 곧은 다리로 걷는 **새**의 걸음 걸이로 표현

① 여울 지어
② 수척한 흰 물살,

- ① 여울 지어
⇒ 개울이 되어
- ② 수척한 흰 물살,
⇒ **가늘**게 흐르는 물줄기
⇒ 표현법 : **의인**법

① 갈갈이
② 손가락 펴고.

▶ 5~6연 : 빗물이 모여 여울 되어 흘러가는 모습

- ① 갈갈이
⇒ 갈래갈래
- ② 손가락 펴고
⇒ 물줄기가 **가늘**게 흐르는 모습
⇒ 표현법 : **의인**법

멧은 듯
① 새삼 듯는 빗날,

- ① 새삼 듯는 빗날
⇒ 다시 떨어지는 **빗방울**

① 붉은 잎 잎
② 소란히 밟고 간다

▶ 7~8연 : 빗방울이 단풍잎에 떨어지는 모습

- ① 붉은 잎 잎
⇒ 단풍잎 : 계절감
- ② 소란히 밟고 간다
⇒ **소리**를 내며 떨어진다.
⇒ 표현법 : **의인**법
⇒ 소란히 밟고 간다 : **청각**적 심상

정진규 「산수유 - 알1」

1 작품 분석

수유리라고는 하지만 도봉산이 바로 지척(咫尺)이라고는 하지만 ①서울 한복판인데 이걸 ②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훌륭하다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 ③벌 떼들, 꿀벌 떼들, 우리 집 뜨락에 어제오늘 가득하다 ④잔치 잔치 벌였다

▶ 산수유가 핀 뜨락을 찾아 온 꿀벌 떼에 대한 놀라움

- ① 서울 한복판
 - ⇒ 메마르고 단절된 도시 속에서도 **사랑** 과 **소통** 이 존재함
- ② 정말 놀라운 일이다
 - ⇒ **소통** 부재의 도시적 삶을 우회적으로 비판
- ③ 벌 떼들, 꿀벌 떼들
 - ⇒ **사랑** 과 **소통** 의 대상
 - ⇒ 물아일체의 대상
- ④ 잔치
 - ⇒ 구애와 연정이 실현되는 내통 현장
 - ⇒ 물아일체가 구현되는 공간 : 화자의 감흥 표현
 - ⇒ **사랑** , **소통** , 넘나들, 무아, 환희, 하나됨

한 그루 활짝 핀, 그래, ①만개(滿開)의 산수유, 노오란 꽃송어리들에 꽃송어리들마다에 ②노오랄게 취해! 진중일 환하다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③두근거렸다 ④잉잉 거렸다

▶ 만개한 산수유로 인해 즐거운 화자와 꿀벌들

- ① 만개(滿開)의 산수유, 노오란 꽃송어리들
 - ⇒ **사랑** 과 **소통** 의 대상 : 물아일체의 대상
 - ⇒ 산수유 나무 : 희로애락을 함께 한 조강지처 이상의 대상, 아름다운 사랑/연인/아내 같은 존재
- ② 노오랄게 취해! 진중일 환하다
 - ⇒ **소통** 과 **사랑** 의 교감의 시각적 형상화
 - ⇒ 노오랄게 : 색(빛)깔 표현 사용, **시각** 적 심상
 - ⇒ 노오랄게 : 노랄게 - **시적** 허용
- ③ 두근거렸다
 - ⇒ **사랑** 과 **소통** 의 설렘

④ 잉잉거렸다

⇒ 잉잉 : 의성어 사용, **청각** 적 심상

이건 노동이랄 수만은 없다 ①꽃이다! 열려 있는 것을 마다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럴 까닭이 있겠는가 사전을 뒤적거려 보니 꿀벌들은 꿀을 찾아 11킬로미터 이상 ②왕복(往復)한다고 했다

▶ 꿀을 찾아 왕복하는 꿀벌

① 꽃이다! 열려 있는 것

⇒ **열림** 의 대상

⇒ **사랑** 과 **생명** 잉태

② 왕복(往復)

⇒ 일방향이 아닌 **쌍방향** 적 소통

그래, 왕복이다 ①나의 사랑도 일찍이 그렇게 길 없는 길을 찾아 왕복했던가 너를 드나들었던가 그래, 무엇이든 왕복일 수 있어야지 사랑을 하면 그런 ②특수 통신망을 갖게 되지 ②광(光)케이블을 갖게 되지 그건 아직도 유효해!

▶ 사랑하는 상대와의 내밀한 소통에 대한 깨달음

① 나의 사랑도 일찍이 그렇게 길 없는 길을 찾아 왕복했던가 너를 드나들었던가

⇒ 꽃 → 사랑, 사랑 → 생명 : **알** 의 본래적 모습

② 특수 통신망 / ② 광(光)케이블

⇒ 단절된 개체가 아닌 **소통** 과 **사랑** 이 넘쳐나는 관계 소망

⇒ 사랑의 강렬함을 **속도** 감있게 표현

①한 가닥 염장 미역으로 새카맣게 웅크려 있던 사랑아, ②다시 노오랄게 사랑을 채밀하고 싶은 사랑아, ③그건 아직도 유효해!

▶ 사랑과 소통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

① 한 가닥 염장 미역으로 새카맣게 웅크려 있던 사랑아

⇒ 사랑이 **단절** 된 소통 부재의 상황

② 다시 노오랄게 사랑을 채밀하고 싶은 사랑아

⇒ **사랑** 과 **소통** 의 회복 소망

③ 그건 아직도 유효해!

⇒ **소망** 실현의 긍정적 인식

정호승 「슬픔이 기쁨에게」

1 작품 분석

①나는 이제 ②너에게도 ③슬픔을 주④겠다.
 ⑤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.
 ⑥겨울 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
 ⑦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⑧할머니에게
 ⑨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⑩너를 위하여
 나는 ⑪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.

▶ 1연 : 이기적인 너에게 전하는 슬픔의 평등함

- ① 나
⇒ 슬픔, 긍정적 존재
- ② 너
⇒ 기쁨, 부정적 존재
- ③ 슬픔
⇒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 : 배려
- ④ 겠다
⇒ 의지적 어조
- 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
⇒ 사랑 : 이기적 사랑
⇒ 슬픔 :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
⇒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: 역설법 - 슬픔의 힘
- ⑥ 겨울 밤 거리
⇒ 어려운 상황
- ⑦ 살아온 추위
⇒ 고난, 시련
- ⑧ 할머니
⇒ 소외된 존재 : 약자
- ⑨ 굴값을 깎으면서
⇒ 자신의 이익 추구
- ⑩ 너
⇒ 이기적인 존재
- ⑪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.
⇒ 슬픔도 기쁨만큼 소중한 함
⇒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

①내가 ②어둠 속에서 ③너를 ④부를 때

단 한 번도 ⑤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,
 가마니에 덮인 ⑥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
 ⑦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
 ⑧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
 ⑨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
 나는 이제 ⑩너에게도 ⑪기다림을 주겠다.
 이 세상에 내리던 ⑫함박눈을 멈추겠다.

▶ 2연 : 무관심한 너에게 전하고 싶은 기다림의 힘

- ① 내
⇒ 슬픔
- ② 어둠
⇒ 어려운 상황
- ③ 너
⇒ 기쁨
- ④ 부를 때
⇒ 도움을 요청할 때
- ⑤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,
⇒ 평등하게 대해 주지 않던
⇒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는 삶
- ⑥ 동사자
⇒ 소외된 존재
- ⑦ 가마니 한 장
⇒ 최소한의 관심
- ⑧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
⇒ 이기적인 너
- ⑨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
⇒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
- ⑩ 너
⇒ 기쁨
- ⑪ 기다림
⇒ 소외된 이웃들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
- ⑫ 함박눈
⇒ 가진 자들이 누리는 기쁨
⇒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시련
⇒ 고쳐야 할 대상

①보리밭에 내리던 ②봄눈들을 데리고
 ③추위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
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.
 ④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하며
 ⑤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 가겠다.

▶ 3연 :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여는 슬픔의 힘

① 보리밭 가난한 이의 양식

- ② 봄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**고통**
- ③ 추위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/ 눈 그친 눈길을
너와 함께 걸겠다.
⇒ 추위떠는 사람들 : **소외** 된 자들
⇒ 슬픔에게 다녀와서 : 새로운 인식의 계기
⇒ 너 : **기쁨**
⇒ 너와 함께 걸겠다 : 기쁨을 **포용** 하는 슬픔의 자세
⇒ 소외된 자의 고통을 **이해** 하고 참다운 **사랑** 의 의미
를 알게 하겠다.
- ④ 슬픔의 힘
⇒ **소외** 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
⇒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
- ⑤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 가겠다
⇒ 소외된 이웃들의 슬픔이 **극복** 될 때까지

정희성 「저문 강에 삼을 씻고」

1 작품 분석

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
우리가 ②저와 같아서
③강변에 나가 ④삼을 씻으며
거기 ⑤슬픔도 퍼다 버린다.

▶ 1~4행 : 강물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

- 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
 - ⇒ 힘든 **노동자**의 삶
 - ⇒ 흐르는 것은 물뿐만이 아니다 : 흐르는 것은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흐른다(계속된다)
 - ⇒ 질문 속에 답이 있음 : **설의**법
- ② 저
 - ⇒ 강물
- ③ 강변
 - ⇒ 공간적 배경 : **고단**한 삶을 돌아봄
- ④ 삼
 - ⇒ 생계의 수단, **노동자**의 표상
- ⑤ 슬픔도 퍼다 버린다.
 - ⇒ 슬픔 : 화자의 정서
 - ⇒ 삼을 씻는 행위의 **의미**

일이 끝나 ①저물어
스스로 ②깊어 가는 강을 보며
③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
④나는 돌아갈 뿐이다.

▶ 5~8행 : 삶에 대한 체념과 무력감

- ① 저물어
 - ⇒ 시간적 배경
- ② 깊어 가는 강
 - ⇒ **고통**과 **슬픔**이 깊어지는 곳 : 민중의 **한**과 **비애**의 심화
- ③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
 - ⇒ **체념**적, 소극적 태도
- ④ 나는 돌아갈 뿐이다
 - ⇒ **무기력**한 모습

①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
이렇게 ②저물고, 저물어서
③셋강 바닥 썩은 물에
④달이 뜨는구나

▶ 9~12행 : 희망 없는 삶에 대한 인식

- ①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
 - ⇒ **노동자**의 삶
- ② 저물고, 저물어서
 - ⇒ 황혼녘, 생활고 : **희망**없는 삶
 - ⇒ 표현법 : **반복**법
- ③ 셋강 바닥 썩은 물
 - ⇒ 산업화로 오염된 강
- ④ 달이 뜨는구나
 - ⇒ **반복**적인 삶

우리가 ①저와 같아서
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
③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
④다시 어두워 ④돌아가야 한다.

▶ 13~16행 : 암담한 현실에 대한 체념

- ① 저
 - ⇒ 썩은 **강물**, 그곳에 뜨는 **달**
- ③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
 - ⇒ 산업화의 혜택을 못 받고 **가난**한 삶을 사는 사람들
- ④ 다시
 - ⇒ **반복**적인 삶
- ④ 돌아가야 한다
 - ⇒ 현실을 수용하는 **체념**적 태도

조지훈 「낙화」

1 작품 분석

꽃이 지기로소니
①바람을 탓하라.

- ① 바람을 탓하라.
 - ⇒ 바람 : 외부적 힘
 - ⇒ 바람을 탓할 수 없다 : 꽃이 지는 것은 자연의 **섭리**이기 때문에 꽃이 지는 것을 바람(외부적 힘)에 탓하지 않는다.
 - ⇒ 질문 속에 답이 있음 : **설의** 법

①주렴 밖에 ②성긴 별이
③하나 둘 스러지고

- ① 주렴
 - ⇒ 발
- ② 성긴
 - ⇒ 드문드문한
- ③ 하나 둘 스러지고
 - ⇒ 보이지 않게 되고
 - ⇒ 시간적 배경 : **아침**이 되면서 밤에 뜬 별들이 하나 둘 씩 사라지기 시작함 (**밤** → **새벽**)

①귀촉도 울음 뒤에
②머언 산이 다가서다.
▶ 1~3연 : 꽃이 지는 배경(적막함)

- ① 귀촉도
 - ⇒ 소쩍새, 불여귀, 망제훈 : **한**의 정서
- ② 머언 산이 다가서다
 - ⇒ (**아침**이 되어서)산이 잘 보인다

①촛불을 꺼야 하리
②꽃이 지는데

- ① 촛불을 꺼야 하리
 - ⇒ 이유 : 떨어지는 **꽃**을 잘 보기 위해

- ⇒ 시간적 배경 : **새벽**
- ② 꽃이 지는데
 - ⇒ 비종결 표현, 여운을 남김

①꽃지는 그림자
뜰에 어리어

- ① 꽃지는 그림자
 - ⇒ 떨어지는 꽃의 그림자

①하이얀 미달이가
②우련 붉어라.

▶ 5~6연 : 꽃이 떨어지는 모습(아름다움)

- ① 하이얀
 - ⇒ 하이얀 ↔ 붉어라 : **색채** 대조(대비)
- ② 우련 붉어라
 - ⇒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붉음
 - ⇒ 이유 : 문에 떨어지는 꽃이 비쳐서

①묻혀서 사는 이의
②고운 마음을

- ① 묻혀서 사는 이
 - ⇒ 현실과 **단절**된 화자의 상황
- ② 고운 마음
 - ⇒ 꽃이 지는 것을 **슬퍼**하는 마음
 - ⇒ 시선의 이동 : **외부**에서 **내면**으로

①아는 이 있을까
저허하노니

- ① 아는 이 있을까 / 저허하노니
 - ⇒ 저허하노니 : 두려워하니(옛스런 표현)
 - ⇒ 내 슬픈 마음을 보여 주기 싫다

①꽃이 지는 아침은
②울고 싶으라

▶ 7~9연 : 꽃이 지는 아침에 느끼는 슬픔(무상감 비애)

- ① 꽃이 지는 아침은
 - ⇒ 꽃이 지는 : **소멸**(무상감)
 - ⇒ 아침 : **생성**
 - ⇒ 꽃이 지는 아침 : 만물의 **생성**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지는 꽃은 새로운 **생성**을 위해 사라지는

존재

② 울고 싶어라

⇒ 울고 싶은 심정 : 감정의 직설적 표현

조지훈 「동물원의 오후」

1 작품 분석

- ①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
- ②동물원으로 간다.
- 사람으로 더불어 ③말할 수 없는 슬픔을
- ④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.

▶ 1연 : 시름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원

- ①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
⇒ 이유 : 조국을 **상실** 했기 때문
- ② 동물원
⇒ 시름을 **위로** 받는 공간
- ③ 말할 수 없는 슬픔
⇒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**지식인**의 슬픔과 근심
- ④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.
⇒ 화자의 **절박**한 상황을 심화

- 난 ①너를 ②구경 오진 않았
 빵을 부비며 ③울고 싶은 마음.
 ④혼자서 숨어 앉아 시(詩)를 써도
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
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
 ⑤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.

▶ 2연 : 문학 창작과 감상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암담한 현실

- ① 너
⇒ 동물
⇒ 표현법 : **의인**법
- ② 구경 오진 않았
⇒ **위로** 받으려 옴
⇒ 자유를 **억압**당한 동물과 동병상련
- ③ 울고 싶은 마음
⇒ 심정을 직접 제시 : **망국민**의 비애
- ④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/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
⇒ **시** 창작, 감상의 자유가 박탈당한 비극적 현실
⇒ **시**조차 마음 놓고 읽고 쓰지 못하는 슬픔
- ⑤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.
⇒ **모국**어로 쓴 시를 읽으며 **망국**의 한을 달랠

①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

문득 돌아다보면

사방에서 창살 틈으로

②이방(異邦)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.

③“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”고

속삭이는 소리……

▶ 3연 : 나라 잃은 시인을 들여다 보는 동물원 짐승들

①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

⇒ **자유**를 억압당하는 존재 : **식민지** 상황

⇒ 동물들의 상황과 **전도**된 입장으로 표현 : 위로받기 위한 동물원의 공간이 자신의 암담한 처지를 더욱 강하게 확인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‘**나라** 없는 시인’임을 확인하게 됨

② 이방(異邦)의 짐승들

⇒ 중의적 표현 : 동물원의 **동물**, **일제**, 외세

③ “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”고 / 속삭이는 소리……

⇒ 동물원의 **동물**들이 하는 소리이지만 이는 화자 자신에 대한 **책망**의 소리

⇒ **주객전도**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식을 동물들이 대변함

무인(無人)한 동물원의 오후 ①전도된 위치에

②통곡과도 같은 낙조(落照)가 물들고 있었다.

▶ 4연 : 낙조에 물들어 통곡하고 싶은 동물원의 오후

① 전도된 위치에

⇒ 철책 안의 존재 = **화자**

⇒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(아무도 오지 않은 동물원의 오후)이 화자의 정서와 조응 : 식민지 지식인의 **고독**

과 **비애**

⇒ 동물원의 오후 : 오전의 밝고 힘찬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**어둠**고 **무기력**한 이미지

⇒ 더욱 강한 **현실**인식을 통해 비극성이 심화된 공간

② 통곡과도 같은 낙조(落照)

⇒ 자연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**정서**를 표현

최두석 「성에꽃」

1 작품 분석

- ① 새벽 시내버스는
- ② 차창에 웬 ③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
- ④ 엄동 혹한일수록
- ⑤ 선연히 피는 ⑥ 성에꽃

▶ 1연 : 새벽 시내버스에서 본 성에꽃

- ① 새벽 시내버스는
 - ⇒ 시간적 배경
 - ⇒ 공간적 배경
 - ⇒ **서민**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
- ② 차창
 - ⇒ **세상**을 바라보는 통로
 - ⇒ 차창을 통해 현실의 모습과 문제 상황 제시
- ③ 찬란한 치장
 - ⇒ **성에**꽃
- ④ 엄동 혹한
 - ⇒ 힘겨운 상황
- ⑤ 선연히
 - ⇒ 선명하게
- ⑥ 성에꽃
 - ⇒ **서민**들의 삶의 **애환**이 담긴 결정체
 - ⇒ **힘든** 삶을 **아름다운** 꽃으로 표현

어제 이 버스를 탔던
 ① 처녀 총각 아이 어른
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
 입김과 숨결이
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
 ②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

▶ 2연 : 성에꽃을 통해 느끼는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

- ① 처녀 총각 아이 어른 /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
 - ⇒ **평범**한 사람들, **서민**
- ②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
 - ⇒ 성에꽃

- ①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
- ②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
다시 꽃 이파리 하나, 섬세하고도
- ③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
어느 누구의 ④ 막막한 한숨이던가
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⑤ 정열의 숨결이던가
- ⑥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
성에꽃 한 잎 지우고
- ⑦ 이마를 대고 본다

▶ 3연 :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

- ① 나
 - ⇒ **서민**들의 삶에 **애정**을 보임
- ②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
 - ⇒ **서민**들의 삶을 **이해**하려고
- ③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
 - ⇒ **서민**들에 대한 관심, 애정
 - ⇒ 차가운 아름다움 : **역설**법
- ④ 막막한 한숨
 - ⇒ 서민들의 **힘든** 삶, 애환
- ⑤ 정열의 숨결
 - ⇒ 서민들의 삶의 **열정**
- ⑥ 일없이
 - ⇒ 이유 없이, 무심코
- ⑦ 이마를 대고 본다
 - ⇒ 삶을 **이해**하려고

- ① 덜컥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
- ②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
- ③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.

▶ 4연 : 만날 수 없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

- ① 덜컥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
 - ⇒ 장면 전환 : 친구의 영상
- ②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
 - ⇒ **서민**들을 위한 삶
- ③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.
 - ⇒ 현실에 **저항**하다 감옥 간 친구 : 안타까움

최하림 「아침 시」

1

작품 분석

- ①굴참나무는 ②공중으로 솟아오른다
- ③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④다
-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⑤우리는
-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
- ⑥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
-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
- 나라로 간다 네거리 지나고 시장통과
-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
-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⑦달떠올라
- ⑧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싸인다

▶ 1연 : 굴참 나무의 활력 넘치는 모습

- ① 굴참나무
 - ⇒ 시의 대상
- ② 공중으로 솟아오른다
 - ⇒ 자란다, 상승적 심상 :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, 육안이 아니라 **심안**으로 본 것
- ③ 해만 뜨면
 - ⇒ 시간적 배경, 아침
- ④ 다
 - ⇒ 종결 어미 '다'의 반복, 운율감, **단정**적 표현
- ⑤ 우리는 / 굴참나무가
 - ⇒ **행간** 걸침을 통해 풍성한 표현
- ⑥ 굴참나무는 아침 ~ 입구에 이르면
 - ⇒ 표현법 : **의인**법
 - ⇒ 공간의 이동, 동화적 상상력, 동화적 심상
- ⑦ 달떠올라
 - ⇒ 달처럼 떠 올라
- ⑧ 해
 - ⇒ **생명**력의 상징, 굴참나무가 **지향**하는 대상

①그때쯤이면 ②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
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
 오른다 불이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
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
 토하는 잡목 숲 옆구리를 빠져나가

공중으로 오른다 나무들이 일제히
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
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 간다
 ③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
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
 수가 있다 ④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
 쫘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
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
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

▶ 2연 : 활력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

- ① 그때쯤
 - ⇒ 해 뜰 때
- ② 아이들도 산란한 ~ 막내까지도 큼큼
 - ⇒ 아이들 : **굴참** 나무와 동일성을 가진 대상
 - ⇒ 큼큼 : 의성어(음성상징어) - **청각**적 심상
 - ⇒ 아이들도 산란한 ~ 막내까지도 큼큼 : **심안**으로 만나는 **날선** 장면
- ③ 아이들의 길과 ~ 수가 있다
 - ⇒ 하늘 : 해와 대응
 - ⇒ 아이들의 길과 ~ 수가 있다 : 동화적 상상력
- ④ 그들은 종다리처럼 ~ 수 있다
 - ⇒ 포르릉 포르릉 : 의성어(음성상징어) - **시각**적 심상
 - ⇒ 햇빛 : **생명**력, 활력
 - ⇒ 그들은 종다리처럼 ~ 수 있다 : 다양한 이미지로 비현실적인 것을 형상화(구체화)

한용운 「당신을 보았습니다」

1 작품 분석

①당신이 가신 뒤로 ②나는 당신을 ③잊을 수가 없습니다.

④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.

▶ 1연 :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

① 당신

⇒ 조국, 연인, 부처, 삶의 지표,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

② 나

⇒ 화자 : 한국적 여성 - 끈질긴 저항 정신을 가진 존재

③ 잊을 수가 없습니다.

⇒ 당신은 절대적인 존재이기에

④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.

⇒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 : 나를 위해

⇒ 많습니다. : 경어체 어미의 반복 - 화자의 정서 강조

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①추수가 없습니다.

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, ②주인은 “③거지는 인격이 없다.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. ④너를 도와주는 것은 최악이다.”고 말하였습니다.

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, ④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⑤당신을 보았습니다.

▶ 2연 : 주인의 모멸 속에서 만난 당신

① 추수가 없습니다.

⇒ 이유 : 일제의 수탈로 인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→ 경제적 수난

② 주인

⇒ 일제

③ 거지 / 너

⇒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

④ 쏟아지는 눈물

⇒ 비인간적인 핍박

⑤ 당신

⇒ 주인의 모멸을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존재

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①민적이 없습니다.

②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.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.”하고 ③능욕하려는 ④장군이 있었습니다.

그를 ⑤항거한 뒤에 ⑥남에게 대한 격분이 ⑦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⑧당신을 보았습니다.

▶ 3연 : 장군의 능욕에 항거한 뒤 만난 당신

① 민적이 없습니다

⇒ 민적 : 호적, 주권

⇒ 민적이 없는 이유 : 나라를 잃었기 때문

② 민적 없는 자

⇒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

③ 능욕하려는

⇒ 업신여기어 욕보임

④ 장군

⇒ 일제

⑤ 항거

⇒ 3.1 운동

⑥ 남에게 대한 격분

⇒ 일제에 대한 분노

⑦ 스스로의 슬픔

⇒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

⑧ 당신

⇒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원동력

①아아 ②온갖 윤리, 도덕, 법률은 ③칼과 황금을 ④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⑤알았습니다.

⑥영원의 사랑을 받을까, ⑦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, ⑧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⑨당신을 보았습니다.

▶ 4연 : 절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만난 당신

① 아아

⇒ 감탄사의 사용 : 영탄법

② 온갖 윤리, 도덕, 법률

⇒ 정의라고 믿는 규범

③ 칼과 황금

⇒ 권력과 돈 : 주인, 장군

④ 제사지내는 연기

⇒ 봉사하는, 허망한 연기와 같은 것

⑤ 알았습니다

⇒ 깨달음

⑥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

⇒ 죽음

⑦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

⇒ 과거 역사의

⑧ 술을 마실까

⇒ 깨어있는 삶의 거부 : 의 상태

⑨ 당신

⇒ 절망의 순간 을 주는 존재

황동규 「즐거운 편지」

1

작품 분석

<Ⅰ>

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
 ①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②사소한 일일 것이나
 ③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④헤매일 때에 ⑤오
 랫동안 전해 오던 그 ⑥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.

▶ 1연 : 사랑의 사소함에 대한 고백(간절함의 반어적 표현)

- 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
 ⇨ 처럼 반복되는 일 :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의 당연한 일
- ② 사소한 일
 ⇨ 한 일
 ⇨ 의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 : 법
- ③ 언젠가
 ⇨ 미래의 어느 날
- ④ 헤매일
 ⇨ 헤매 : 허용
- ⑤ 오랫동안 전해 오던
 ⇨ 오랜 시간 지 않은
- ⑥ 사소함
 ⇨ 한 마음, 사랑, 그대를 향한 없는 사랑

<Ⅱ>

①진실로 진실로 내가 ②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③내
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
 데 있었다. ④밤이 들면서 ⑤골짜기엔 ⑥눈이 퍼붓기 시작
 했다. ⑦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.
 다만 그때 내 ⑧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. 그동
 안에 ⑨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
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.

▶ 2연 : 사랑의 순간성에 대한 고백
 (불변성, 영원성의 반어적 표현)

- ① 진실로 진실로
 ⇨ 표현법 : 법 - 간절함의 강조
- ② 그대

- ⇨ 사랑의 대상
- ③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
 ⇨ 사랑의 마음을 는 마음으로 승화
 ⇨ 그대의 의미 : 나의 사랑을 한없는 으로 바꾸는(승화시키는) 존재
- ④ 밤
 ⇨ 외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
- ⑤ 골짜기
 ⇨ 기다림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현실 : 화자의 내면
- ⑥ 눈
 ⇨ 의 시간과 힘든 상황
- ⑦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
 ⇨ 언젠가 내 사랑이 끝날 수도 있음(사랑의 현실을) → 그러나 한 사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됨
- ⑧ 기다림의 자세
 ⇨ 언젠가 끝날 사랑의 고통 속에서도 없는 사랑의 기다림, 진정한 사랑의 자세
- ⑨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.
 ⇨ 계절의 순환(눈, 꽃, 낙엽, 눈)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 : 사랑도 짐(성)
 ⇨ 눈, 꽃, 낙엽은 화자의 없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소재

자기학습용 - 빈칸 답지

황지우 「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」

1 작품 분석

영화(映畵)가 시작하기 전에 ①우리는
②일제히 일어나 ③애국가를 경청한다.

▶ 1~2행 : 영화 시작 전 애국가 경청

① 우리

⇒ **대중** : 구속된 현실에서 **자유**롭지 못함

② 일제히

⇒ **획일** 적이고 **권위** 적인 사회의 모습

③ 애국가를 경청한다

⇒ 강요된 애국심

삼천리 ①화려 강산의

②울속도에서 일정한 ③군(群)을 이루며

④갈대숲을 이룩하는 ⑤흰 새 떼들이

⑥자기들끼리 ⑦끼룩거리면서

자기들끼리 ⑦낄낄대면서

⑧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

⑨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

⑩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다.

▶ 3~10행 : 화면 속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들

① 화려 강산

⇒ 의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 : **반어**법

② 울속도

⇒ 애국가 영상의 마지막 장면

③ 군(群)

⇒ 무리, 떼

④ 갈대숲

⇒ 갈대숲이면서도 **현실**

⑤ 흰 새 떼들

⇒ **자유**로운 존재 : **부러움**의 대상

⑥ 자기들끼리

⇒ 새들끼리

⑦ 끼룩거리면서 / ⑦ 낄낄대면서

⇒ 사람의 웃는 소리 : **비웃음**, 조롱, 냉소적)

⑧ 일렬 이열 삼렬 횡대

⇒ **획일**화된 모습을 강요하는 군사문화에 대한 풍자

⑨ 이 세상

⇒ **억압**받고 있는 현실

⑩ 이 세상 밖 어디론가

⇒ 현실에서 **벗어**난 곳

①우리도 우리들끼리

②낄낄대면서

③갈쭈대면서

우리의 ③대열을 이루며

④한 세상 떼어 메고

⑤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

⑥하는데 ⑦대한 사람 대한으로

길이 보전하세로

⑧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.

⑨주저앉는다.

▶ 11~20행 : 화자의 이상과 좌절

① 우리도 우리들끼리

⇒ 자기들끼리와 대응

② 낄낄대면서

⇒ 새들과 같은 소리

③ 갈쭈대면서

⇒ 새들처럼 현실을 **조롱**하면서

③ 대열을 이루며

⇒ **연대**의식, **공동체**의식

④ 한 세상

⇒ **부자유**의 현실

⑤ 이 세상 밖

⇒ **자유**로운 공간

⑥ 하는데

⇒ 전환 (**생각**에서 다시 **애국가**로)

⑦ 대한 사람 대한으로 / 길이 보전하세로

⇒ 애국가의 끝, 독재의 보전, **강요**된 조국애,

좌절의 계기, 영화의 시작

⑧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

⇒ 현실을 **벗어**날 수 없음

⑨ 주저앉는다

⇒ **좌절**감, **절망**감